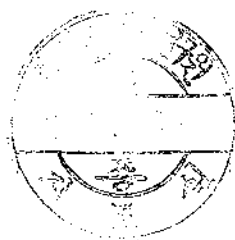


海外農業資料 8

先進國의 小麥政策

— 開途國에 미치는 그 影響 —

金 辰 洙 編譯



韓國農村經濟研究院

RP 2237

解題

1960년대 이후 開發途上國의 小麥輸入量은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開發國에 대한 先進國의 小麥輸出量도 상당히 증대되어 小麥은 현재 農産物의 南北貿易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貿易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南北間의 小麥貿易量의 증대와 아울러 小麥貿易의 형태가 1950~60년대의 無償援助의 性格에서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商業的 去來의 性格으로 바뀌면서 開發國의 世界 小麥市場 構造에 대한 관심은 점증하고 있다.

世界의 小麥貿易에서 차지하는 先進國의 높은 比重 때문에 이들의 小麥政策은 開發途上國이 購入할 수 있는 世界市場의 小麥供給量과 그 價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에는 先進國의 農業政策이 世界 農産物市場을 不安定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貿易材가 된 小麥에 대하여 先進國의 政策이 世界市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고, 그에 따라 開發國에 어떠한 問題를 야기시켜 왔는가를 分析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이 책은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가 發刊한 Timothy Josling著 「Developed-Country Agricultural Policies and Developing-Country Supplies; The Case of Wheat」, March, 1980, Research Report 14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報告書에서는 先進國의 小麥政策이 世界 小麥市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不安定한 世界市場이 開發國에 가져다 줄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先進國과 開發國의 立場에서 어떠한 조치나 政策調整이 필요한가를 밝히고 있다.

이 報告書에서 分析對象이 되고 있는 國家는 美國, EC 6個國(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國)과 캐나다, 濠洲, 日本, 英國 등 6個 地域의 先進國과 蘇聯이다. 英國을 EC에서 떼어 놓은 것은 分析期間이 1969/70~1977/78년으로서 英國은 이 中間에 EC에 參與했기 때문이다. 蘇聯을 先進國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蘇聯이 市場經濟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他先進國과는 小麥部門의 性格이 다르기 때문이다.

第2章에서는 先進國의 小麥生産, 消費 在庫 및 貿易의 水準과 年次別 變動을 살펴보고, 3章에서는 先進國의 價格政策이 貿易量과 國際價格 水準에 미친 傾向을 간단한 모델을 이용하여 分析했다. 4章에서는 在庫變化도 先進國의 價格政策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 先進國 價格政策의 總 效果를 貿易效果와 在庫變化의 合計로서 나타내었다. 5章에서는 各國의 國內價格, 貿易效果 및 在庫와 世界 市場條件과의 關係를 單純回歸式으로 分析하고 6章과 7章은 世界 小麥市場安定과 開發國의 食糧安保를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政策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Josling의 分析에 의하면, 世界 市場不安定의 근본적 原因이 先進國의 政策에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先進國의 國內價格政策이 世界 市場條件에 잘못 반응하거나 매우 느린 속도로 반응함으로써 자연적인 生産變動으로 일어난 問題를 惡化시킨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先進國 間의 政策調整은 世界 小麥市場을 安定시키고, 世界 전체에 利益을 주리라는 것이 Josling의 주장이다.

先進國의 小麥政策

— 開發國에 미치는 그 影響 —

I. 序 論

II. 先進國과 世界 小麥市場

III. 先進國의 政策이 小麥貿易量과 國際價格 水準에 미치는 영향

IV. 先進國의 農業政策이 市場安定에 미치는 영향

V. 世界 市場條件에 대한 政策의 반응

VI. 앞으로의 政策方向

VII. 開發途上國에 대한 含蓄的 의미

I. 序 論

世界의 農業經濟가 성공적으로 遂行되고 있는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生産增加가 얼마나 人口의 증가와 꾸준한 食生活改善에 대한 需要를 充足시킬 수 있는가로 판단되어야 한다. 政府의 모든 農業政策은 그 目的達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적절한 投資決定을 誘導하고 農業生産의 不確實性を 줄이는 政策도 있지만 投資를 誤導하거나 市場의 不確實性を 증대시키는 政策도 있다.

先進國의 農業保護政策은 生産費가 높은 食品의 국내 생산을 증대시키고 世界市場의 不安定性을 높여줌으로써 開發途上國들의 독자적인 食糧政策 遂行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난도 자주 나오고 있다.

本 研究는 그와 같은 争点과 관련하여 先進諸國의 政策이 開發途上國에 販賣되는 小麥의 價格과 供給量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問題를 究明하고 특히 食糧을 輸入하는 開發途上國들에게 重要한 의미를 갖는 先進國의 政策的 要素들을 살펴 볼 것이다. 이 研究의 目標은 食糧不足에 당면하고 있는 開發途上國의 食糧問題分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食糧

供給에 영향을 미치는 先進國 農業政策의 가장 重要한 特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10년 間의 經驗을 評價함으로써 앞으로의 政策發展方向을 豫測하고 이것이 갖는 潛在의效果도 살펴 보고자 한다.

先進國의 農業政策이 世界經濟에 미치는 重要한 影響의 하나는 全 世界의 農業生産의 위치에 대한 것이다. 長期的으로는 必須的인 食品의 供給費用을 極少化시키는 방법으로 世界의 農業資源을 사용하는 것이 모든 國家에게 利益이 되겠지만 현재의 農業生産形態는 그렇지 못하다. 農家所得을 支持하기 위한 先進國의 政策은 世界 經濟體制가 食糧을 最低費用으로 생산할 수 있는 能力을 歪曲시키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先進國의 農業支援政策은 農業部門에서 國際競爭力이 뒤떨어진 部門에 치중되고 있으며, 그 生産物에 대한 支持價格水準이 주로 自國內의 인플레이션과 所得趨勢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價格水準은 世界 市場價格水準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보통이다. 물론 非效率的인 國內農業을 保護하라는 說得力있는 政治的 주장도 있지만, 이 주장은 그 部門의 國際競爭力 缺如를 前提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政策들로 인한 國家財政과 消費者의 追加負擔은 이 政策들이 遂行되지 않았을 경우에 줄어들 食糧生産의 資源費用을 나타낸다.

또한 先進國의 農業政策은 世界의 食糧價格과 市場不安定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國內의 生産者 및 消費者 價格水準을 固定시키는 政策은 다른 國家들에게 短期的 市場調整을 강요하게 된다. 이 政策의 主要目標인 國內價格安定을 달성하기 위한 制度는 나라마다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生産과 消費의 변화에 상응하는 在庫調整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나라가 國際市場의 不安定性을 惡化시키게 된다.

國際市場의 不安定性은 主要 農産物의 國際價格이 輸出國 政府의 貯藏 및 輸出支援計劃 등의 流通政策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도 일어난다. 價格이 안정적이어도 農業이 효율적인 지역에서조차 生産費를 보장받지 못할 만큼 價格水準이 낮다는 우려로 인해 不確實성이 야기될 수 있다. 1960년대에 穀物輸入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한 開發途上國들은 先進國의 國內 農業支援計劃이나 海外援助 등이 있어야만 穀物購入條件이 유리해 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穀物の 剩餘를 발생시키던 先進國의 政策이 凶作으로 인한 生産量 減少가 國內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輸出量을

감소시키는 政策으로 바뀌면서 食糧剩餘時期는 종지부를 찍었고 이에 따른 價格暴騰은 開途國에 심각한 우려를 주었다.

價格의 不安定과 政策의 不確實性은 資源利用과 投資決定에 심각한 長短期的의 의미를 갖는다. 1973년의 穀物價格暴騰이 世界的으로 農業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은 지금도 명백하다. 食糧을 輸入하는 先進國에서는 食糧不足에 대처하기 위해 農業에 대한 支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은 반면, 輸出國에서는 價格上昇이 經濟好況期에 일어났다는 추측이 유력해 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政府나 農民이 長期的 資源配分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世界穀物價格의 움직임에 대한 엇갈린 해석에서 오는 價格不安定의 시대는 분명히 世界的인 損失을 가져오게 된다.

이 報告書는 貿易 특히 開途國에 대한 先進國의 小麥販賣에 영향을 미치는 小麥貿易과 小麥貿易政策에 초점을 두고 貿易量 및 國際價格水準과 그 안정에 미치는 政策의 영향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報告書는 그와 같은 政策과 世界市場條件의 관계를 고찰하고 開途國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살펴 볼 것이다. 2章에서는 世界小麥市場에서 차지하는 先進國의 위치를 개관하고 지난 10년동안 先進國의 農業政策이 小麥價格과 需給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규명한 다음 先進國의 政策과 開途國의 食糧供給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國內政策과 國際政策의 전개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II. 先進國과 世界 小麥市場

世界 小麥市場에는 최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小麥輸出은 豫州, 캐나다, 美國 및 프랑스 등 4 개국에 점점 집중되고 있으며, 그 밖에는 아르헨티나만이 상당량의 小麥을 輸出하고 있다. 輸入面에서는 전통적인 輸入國인 日本과 英國의 輸入量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開發途上國의 輸入量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蘇聯과 中共은 不規則的으로 世界市場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은 世界市場에 重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중요한 貿易財가 된 小麥이 肥沃한 溫帶 農業地域과 人口過剩의 熱帶地域을 연결시키는 역할은 높아지고 있다. 늘어나는 世界人口의 食糧需要를 充足시키고 현재의 食生活을 개선시키는 能力은 小麥의 國際的인 흐름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어쨌든 小麥市場條件은 世界食糧安保의 가장 重

要한 決定要因이다.

開途國의 對先進國 小麥輸入量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先進國의 國內 農業政策의 重要性을 더욱 높여 주었다. 대체로 大恐慌의 遺産인 先進國의 農業政策은 世界市場의 小麥供給量과 價格에 영향을 미치고 世界市場構造와 그 움직임도 결정한다.

先進國의 公共 및 民間機關은 小麥 및 기타 農産物의 流通에 있어서 重要한 역할을 한다. 이 機關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世界 食糧問題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農業政策은 주로 國內問題에 국한하여 분석되어 왔으며 이 政策이 다른 國家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소홀히 되어 왔다. 國際 小麥價格이 暴騰하고 供給도 不足했던 1972~74년 間의 사태는 國際市場 특히 食糧의 상당한 부분을 國際市場에 의존하고 있는 開發途上國에 대한 先進國 小麥政策의 重要性을 생생하게 말해 주고 있다.

表 1. 先進國의 小麥生産 및 消費, 1968/69~1977/78

단위: 백만M/T

國 別	1968/69	1969/70	1970/71	1971/72	1972/73	1973/74	1974/75	1975/76	1976/77	1977/78
生 産										
濠 州	14.8	10.5	7.9	8.5	6.4	12.0	11.4	11.8	11.7	9.4
캐나다	17.7	18.6	9.0	14.4	14.5	16.2	13.3	17.1	23.6	19.7
E C	30.0	28.5	26.5	30.5	32.2	32.5	35.0	28.4	33.9	32.5
日 本	1.0	0.8	0.5	0.4	0.3	0.2	0.2	0.2	0.2	0.2
英 國	3.5	3.4	4.2	4.8	4.8	5.0	6.1	4.5	4.7	5.2
美 國	42.9	39.7	37.3	44.0	42.0	46.4	48.9	58.1	58.3	55.1
小 計	109.9	101.5	85.4	102.6	100.2	112.3	114.9	120.1	132.4	122.1
蘇 聯	93.4	79.9	99.7	98.8	86.0	109.8	83.9	66.2	96.9	n.a
計	203.3	181.4	185.1	201.4	186.2	222.1	198.8	186.3	229.3	n.a
消 費										
濠 州	2.3	2.4	2.6	2.7	3.2	3.1	3.0	2.7	2.8	2.6
캐나다	4.3	4.6	4.7	4.8	4.8	4.8	4.6	4.8	5.1	5.6
E C	23.2	26.9	25.9	26.3	27.6	26.8	25.9	23.9	29.9	30.2
日 本	5.1	5.2	5.2	5.2	5.3	5.5	5.5	5.6	5.7	5.7
英 國	7.9	8.2	9.4	8.6	9.2	8.0	9.3	8.2	8.2	8.6
美 國	20.5	21.5	20.9	23.4	21.3	20.6	19.1	19.9	20.7	23.0
小 計	63.3	68.8	68.7	71.0	71.4	68.8	67.4	65.1	72.4	75.7
蘇 聯	85.9	93.6	101.0	93.5	98.3	95.3	93.4	83.8	88.4	97.5
計	149.2	162.4	169.7	164.5	169.7	164.1	160.8	148.9	160.8	173.2

資料: USDA, "Foreign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Commodities Tape," Washington D.C. May 1978.

1. 生産, 消費 및 貿易水準

先進國의 小麥政策과 이 政策이 貿易水準과 價格의 安定性에 미치는 영향을 評價하기 위하여 世界 小麥市場에서 先進國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本 研究에서는 모든 先進國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濠州, 캐나다, EC, 日本, 美國 및 蘇聯 등 世界 穀物貿易에 가장 重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一群의 先進國들을 研究對象으로 삼았다. <表 1>은 이 國家들의 1968/69~1977/78년도 間의 生産 및 消費水準을 보여주고 있다.

한 나라의 政策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 나라의 生産 및 消費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世界 小麥市場에서 蘇聯의 위치는 유의할 필요가 있

表 2. 先進國의 期末在庫와 在庫増減, 1968/69~1976/77

단위: 백만M/T

國 別	1968/69	1969/70	1970/71	1971/72	1972/73	1973/74	1974/75	1975/76	1976/77
期末在庫									
濠 州	7.6	7.5	3.7	1.6	0.6	2.0	1.7	2.6	2.1
캐 나 다	23.2	27.5	20.0	15.9	9.9	10.1	8.0	8.2	13.3
E C	7.2	3.8	4.1	5.8	5.7	6.0	8.1	6.0	5.7
日 本	1.0	0.9	1.0	1.0	1.2	1.1	1.2	1.5	1.5
英 國	1.3	1.1	1.2	1.0	1.2	1.1	1.5	1.4	1.3
美 國	24.6	26.8	22.4	26.8	16.2	9.3	11.8	18.1	30.3
小 計	64.9	67.6	52.4	52.1	34.8	29.6	32.3	37.8	54.2
蘇 聯	31.0	12.0	4.0	7.0	9.0	23.0	12.0	4.0	16.0
計	95.9	79.6	56.4	59.1	43.8	52.6	44.3	41.8	70.2
在庫増減									
濠 州	5.8	-0.0	-3.9	-2.1	-1.0	1.4	-0.3	1.0	-0.6
캐 나 다	4.3	-7.5	-4.1	-5.9	0.1	-2.1	0.2	5.1	
E C	2.0	-3.3	0.3	1.6	-0.1	0.2	2.2	-2.1	0.3
日 本	-0.1	-0.1	0.1	0.1	0.2	-0.1	0.0	0.4	0.0
英 國	0.0	-0.1	0.0	-0.2	0.2	-0.0	0.4	-0.2	-0.1
美 國	7.5	2.2	-4.4	4.4	-10.6	-7.0	2.6	6.3	12.2
小 計	20.1	3.0	-15.4	-0.3	-17.2	-5.4	2.8	5.6	16.9
蘇 聯	2.0	-19.0	-8.0	3.0	2.0	14.0	-11.0	-8.0	12.0
計	22.1	-16.0	-23.4	2.7	-15.2	8.6	-8.2	-2.4	28.9

註: 陽數는 在庫增加, 陰數는 在庫減少를 나타냄.

資料: USDA, <表 1>과 同-.

다. 蘇聯의 生産량은 濠州, 캐나다, EC 및 美国의 生産량을 합친 수준에 크게 되지 않으며, 蘇聯의 消費량은 이 나라들의 消費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美国의 生産량은 蘇聯 生産량의 半을 넘고, 그 다음으로 生産량이 많은 지역은 EC이며, (EC의 生産량은 캐나다 生産량의 70%를 上廻한다) 消費面에서는 EC, 美国, 英国, 日本, 캐나다의 順으로 되어 있다. 美国, 蘇聯 및 EC에서의 生産, 消費決定과 캐나다, 濠州의 生産決定은 世界 小麦經濟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表 3. 先進國의 小麦 純輸出, 1968/69~1976/77

단위: 백만M/T

國 別	1968/69	1969/70	1970/71	1971/72	1972/73	1973/74	1974/75	1975/76	1976/77
濠 州	6.7	8.1	9.2	7.9	4.2	7.5	8.7	8.1	9.5
캐 나 다	8.5	9.7	11.8	13.7	15.6	11.3	10.8	12.1	13.4
E C	4.8	4.9	0.3	2.6	4.7	5.5	6.9	6.6	3.7
日 本	-4.0	-4.3	-4.8	-4.9	-5.2	-5.2	-5.3	-5.8	-5.9
英 国	-4.4	-4.7	-5.2	-3.6	-4.6	-3.0	-3.6	-3.5	-3.4
美 国	14.9	16.0	20.8	16.2	31.3	32.8	27.2	31.9	25.4
小 計	26.4	29.9	32.0	31.8	46.0	48.8	44.7	49.5	43.7
蘇 聯	5.5	5.3	6.7	2.3	-14.3	0.5	1.5	-9.6	-3.5
計	31.9	35.2	38.7	34.1	31.7	49.3	46.2	39.9	40.2

資料: USDA, <表1>과 同一.

表 4. 開發途上國의 小麦輸入, 1968/69~1977/78

단위: 백만M/T

지역별	1968/69	1969/70	1970/71	1971/72	1972/73	1973/74	1974/75	1975/76	1976/77	1977/78
아시아 ¹⁾	9.0	9.3	8.9	8.7	9.3	11.5	13.1	14.7	11.8	8.9
남 미	5.7	4.9	5.0	6.1	8.5	7.4	6.4	8.2	7.1	10.1
북아프리카 ²⁾	4.7	6.0	8.3	9.3	6.8	9.8	12.2	11.3	10.6	13.6
아프리카	0.9	1.2	1.7	1.6	1.6	1.7	1.7	1.9	2.3	2.3
계	20.4	21.4	23.8	25.7	26.1	30.5	33.4	36.0	31.9	34.9

1) 아시아의 共産國家 포함.

2) 中東포함.

資料: USDA, <表1>과 同一.

在庫에 대한 資料는 일관성이 없기는 하지만, <表2>는 이들 國家의 小麦在庫를 나타낸다. 이 期間 동안에 美国, 캐나다와 蘇聯이 小麦在庫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輸入國인 日本, 英国과 濠州의 在庫는 비교적 적었다. EC의 在庫水準도 그 生産 및 消費水準에 비하면 낮았다. <表2>

를 보면 美國과 蘇聯의 在庫는 매년 변하지만 輸入國과 EC의 在庫는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을 보면 美國의 輸出量이 캐나다의 2 배 가까운 水準으로 美國이 國際市場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漸增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濠州보다는 멀어지지만 EC는 지속적인 純輸出國이다. 日本의 輸入量은 계속 증가했으나 英國의 輸入量은 약간 減少했다. 分析期間의 初期에는 輸出國이었던 蘇聯이 不規則적인 大量輸入國이 되었는데, 1972/73년에는 그 輸入量이 캐나다의 輸出量과 비슷한 水準이었다. 이 변화는 貿易形態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68/69~1971/72년 사이에 蘇聯은 가장 큰 單一 輸入國인 英國 輸入量의 약 110%를 輸出했으나, 1972/73~1976/77년 사이에 蘇聯의 年平均 輸入量은 英國의 輸入量보다 41%나 많은 水準이었다.

〈表 4〉는 開途國의 小麥輸入을 나타낸다. 이들의 總 小麥輸入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아시아의 資本主義國家, 北아프리카 및 中東地域의 輸入이 증가했으며, 1972/73~1973/74년을 제외하면 開途國의 輸入은 美國의 輸出量을 超過하고 있다. 分析期間의 初期에는 開途國의 小麥輸入의 대부분은 美國의 食糧援助計劃 등 無償計劃에 의한 것이었으나 1970년대 初期에 이르러서는 貿易量의 대부분이 商業的 去來로 바뀌었다.

2. 生産 및 貿易動向

生産, 消費, 在庫 및 貿易은 輸入需要 변화에 대한 小麥貿易의 動態의인 반응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小麥市場의 不安定性은 큰 편이다. 小麥栽培地域은 매년 예측할 수 없는 氣象變化로 인하여 收穫量이 크게 변동하고 있다. 이것은 〈表 1〉에 잘 나타나 있다. 先進國의 生産水準은 최저 1970/71년의 85.4백만M/T에서 최고 1976/77년의 132.4백만M/T을 나타내어 47백만M/T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各國別로 生産量의 最高水準과 最低水準의 차이를 보면, 美國이 21백만M/T이고 캐나다는 15백만M/T이다. 濠州와 EC의 生産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유럽의 生産水準이 濠州의 水準보다 2~3배가 많지만 最高水準과 最低水準의 차이는 각각 8.5백만M/T이다. 蘇聯의 生産은 1975/76년의 최저 66.2백만M/T에서 1973/74년의 109.8백만M/T까지 43.6백만M/T의 차이를 보였다. 이 國家들의 생산이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 10년 間의 生産變動資料로서 앞으로의 生産變

動範圍를 予測하게 되면 그 범위를 과장할 可能性이 있지만, 後進國의 輸入量이 20~30백만M/T 정도인데 비하면 이와같은 生産變動이 世界 市場의 潛在的 不安定要因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반면에 先進國의 消費는 점차 安定되어 가고 있다. 先進國의 경우 消費는 1969년에 最低水準에 그치고 1978년에 最高水準에 달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消費의 增加趨勢가 生産의 增加趨勢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특히 캐나다, EC, 日本의 경우에 이같은 趨勢가 명백하게 나타났다. 濠州는 1973년에 그리고 英國은 1971년에 각각 最高 消費水準을 나타내었다. 美國의 消費는 1972년에 最高水準 그리고 3년 후인 1975년에 最低水準이었고, 蘇聯은 1971년에 最高水準, 1976년에 最低水準이었다. 10년 間의 最高 消費水準과 最低 消費水準의 차이를 보면, 先進國은 12.4백만 M/T이고, 蘇聯은 17.2백만 M/T이었으며, EC는 先進資本主義 國家中에서 消費水準의 변동폭이 가장 컸음을 나타냈지만 그것은 蘇聯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不安定的인 生産과 消費가 潛在적으로 외부에 미치는 효과는 生産과 消費의 最高·最低點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은 當時剩餘(生産—消費)를 통해 알 수 있는데, 先進國의 경우 이것은 1976/77년의 60.0백만M/T에서 1970/71년의 16.7백만M/T까지 43.3백만M/T의 변동폭이 있었는데 이것은 生産變動幅 47.0백만M/T과 비슷한 수준이다. 消費變化는 生産變動과 거의 獨立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当期剩餘變動에 따른 不安定이 海外로 「輸出」되지 않는 한, 在庫에 상당한 負擔을 주게 될 것이다. 蘇聯의 경우 當時剩餘 32.1백만M/T의 변동은 生産變動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데 이것은 消費와 生産間에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在庫變動은 스스로 市場에 潛在的 影響을 미치거나, 生産과 消費의 변동에 의한 影響을 조정해 주기도 한다. 先進國의 在庫水準은 32.3백만M/T에서 67.6백만M/T까지, 蘇聯의 在庫水準은 4.0백만M/T에서 31.0백만M/T까지의 변동을 보였다. 蘇聯의 在庫變化가 生産變動에 비해 이렇게 낮은 것은 부분적으로 蘇聯에 대한 在庫資料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 絶對水準보다 重要한 문제는 在庫水準의 增減이다. 先進國의 在庫增減을 보면 20.2백만M/T이 증가한 경우(1968/69)도 있고, 17.3백만M/T이 減少한 경우(1972/73)도 있으며,

蘇聯은 1972/73년에 14.0백만M/T이 증가했으나 1969/70년과 같이 19.0백만M/T이 減少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分析期間동안의 在庫增減의 傾向은 先進國이 37.5백만M/T이고 蘇聯이 33.0백만M/T이다. 이를 보면 西方 先進國들이 蘇聯에 비해 좀 더 伸縮的인 在庫運營을 하고 있는 것 같다.

在庫變動이 世界 市場安定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世界 市場條件을 반영하는지 또는 國內事情을 반영하는지에 달려있다. 純貿易 밸런스(輸出—輸入)가 当期剩餘(生産—消費)보다 安定되면 在庫는 國內市場의 變動을 緩和시킬 것이다. 先進國의 純貿易 밸런스는 26.4백만M/T(1968/69)에서 49.5백만M/T(1975/76)까지 변동하여 23.1백만M/T의 차이가 생겼다. 蘇聯의 경우는 -14.3백만M/T(1972/73)에서 6.7백만M/T(1970/71)까지 변동하여 21백만M/T의 변동폭을 나타냈다. 先進國은 当期剩餘의 변동 43.3백만M/T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純貿易 밸런스의 변동 23.1백만M/T으로 떨어뜨렸다. 蘇聯의 純貿易 밸런스는 전체적으로 先進國과 비슷하게 변동했지만 蘇聯의 当期剩餘 變動量이 先進國보다 훨씬 적은 32.1백만M/T이므로 当期剩餘 變動이 純貿易 밸런스 변동으로 줄어드는 폭은 蘇聯이 先進國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蘇聯이 대규모 穀物輸入國으로 등장했던 1972/73년의 경우와 같이 어떤 해에는 蘇聯과 先進國의 純貿易變動은 서로 相殺作用을 한다. 그러나 蘇聯과 先進國 兩陣營의 純輸出은 매년 변동하여 1973/74년에 49.3백만M/T으로 最高水準을, 1972/73년에 31.7백만M/T으로 最低水準을 나타내어 17.6백만M/T의 차이를 보였다. 이들 國家의 純輸出量은 어느 정도 後進國의 輸入需要量과 일치했다. 後進國의 輸入量은 1968/69년의 20.4백만M/T에서 1975/76년의 36.0백만M/T까지 변동했다. 뿐만 아니라 先進國의 純輸出量이 後進國의 輸入量을 초과하는 量은 1973/74년의 18.8백만M/T에서 1975/76년의 3.9백만M/T까지 변동하여 14.9백만M/T의 변동폭을 보였다. 이 數值들을 보면 先進國과 蘇聯의 貿易이 항상 世界 市場의 안정에 기여하지는 못했음이 분명하다.

1968/69~1977/78년 間의 生産, 貿易, 在庫 및 消費의 最高水準과 最低水準의 절대적 차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單位: 百만M/T).

先進國 消費	12.4	蘇聯 在庫變化	32.1
後進國 輸入	16.4	先進國 在庫變化	37.5

蘇聯 消費	17.2	蘇聯 生産	43.6
蘇聯 純貿易	21.0	先進国 当期剰余	43.3
先進国 純貿易	23.1	先進国 生産	47.0
蘇聯 当期剰余	32.1		

当期剰余는 特定年度の 生産과 消費의 差이고, 在庫變化는 總在庫水準의 高低差가 아니라 年末在庫의 前年對比 増減을 의미한다. 先進国の 消費, 後進国の 輸入 및 蘇聯의 消費는 변동폭이 작은 편이나 先進国の 生産, 蘇聯의 生産 및 先進国の 当期剰余는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 이것은 先進国の 在庫變化나 政策이 世界 小麦市場의 不安定性을 加重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물론 生産, 消費, 在庫 및 貿易은 市場의 작용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各國의 政策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蘇聯과 같이 國際市場價格의 變化가 國內生産과 食品價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國家에서는 外換의 制約이 生産에 대한 消費의 반응을 규정짓는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收穫이 나쁘면 消費도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資本主義國家에서도 價格機構를 통해 存在할 수 있으나, 政府가 政策的으로 貿易, 在庫 및 支援策 등을 통해 國內價格水準을 조작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先進 資本主義國에서는 生産과 消費間의 相關關係가 훨씬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表 5. 生産, 消費, 在庫 및 貿易의 前年對比 増減, 1969/70~1977/78

단위: 백만M/T

年 度	先進資本主義國				蘇 聯				後進國
	生産	消費	在庫	純貿易	生産	消費	在庫	純貿易	純貿易
1969/70	-8.4	5.5	-17.4	3.5	-13.5	7.7	-21.0	0.2	1.0
1970/71	-16.1	-0.1	-18.0	2.1	19.8	7.4	11.0	-1.4	2.4
1971/72	17.2	2.3	15.1	-0.2	-0.9	-7.5	11.0	4.4	1.9
1972/73	-2.4	0.4	-17.0	14.2	-12.8	4.8	-1.0	16.6	0.4
1973/74	12.1	-2.6	11.9	2.8	23.8	-3.0	12.0	-14.8	4.4
1974/75	2.6	-1.4	8.1	-4.1	-25.9	-1.9	-25.0	-1.0	2.9
1975/76	5.2	-2.3	2.7	4.8	-17.7	-9.6	3.0	7.4	2.6
1976/77	12.3	7.3	10.7	-5.8	30.7	4.6	20.0	-6.1	-4.1
1977/78	-10.3	3.3	-	-	3.1	9.1	-	3.5	3.0

資料: USDA, <表1>과 同一.

이 可能性을 고찰하기 위해 生産, 消費, 在庫 및 貿易의 年度別 増減을 <表 5>에 실었다. 先進国에서는 分析期間인 9년 가운데 3년만 生産과 消費의 변화의 부호가 같은 반면, 蘇聯에서는 6년이나 生産과 消費가 함께 움직였다. 따라서 蘇聯에 비해 先進国の 国内生産과 国内消費 間の 相關關係가 미약함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國際市場의 潛在的인 不安定要素가 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在庫變化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表 5>를 보면, 先進国の 경우 在庫變化와 生産變動은 매년 부호가 같았지만 純輸出은 8년 가운데 겨우 2년만 生産變化와 같은 부호를 나타냈다. 蘇聯의 경우 在庫變化가 生産變化와 같은 부호를 나타낸 것은 8년 가운데 5년이었고 純貿易 밸런스가 生産變化와 같은 부호를 나타낸 것은 7년이었다.

이상에서 先進국은 生産變化로 인한 영향을 在庫變化로 相殺시켜 價格變化를 萎縮시키는 政策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生産變動은 海外市場에 不當하게 轉嫁되는 것 같지는 않으며 그 在庫變化는 消費를 유지시키고 貿易需要變化에도 반응한다. 問題는 이 反應도가 價格壓力을 相殺하고 나아가서 적극적인 世界市場의 安定作用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蘇聯의 경우도 国内 生産變動에 따라 在庫量이 변동하지만 蘇聯은 貿易制度를 自国内的 收穫量變動을 커버하는데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消費者에 대한 供給量의 변동은 先進国보다 크다.

다음 章에서는 国内 市場價格과 在庫水準을 調節하기 위하여 취해진 先進国の 政策이 世界 市場均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III. 先進国の 政策이 小麦貿易量과 國際價格水準에 미치는 영향

1. 貿易을 통한 國家間 相互作用

第 2 章에서는 世界 小麦市場에서의 先進国の 위치와 諸 變數의 變動幅을 논의했다. 市場變動의 탓을 모두 政策에 돌릴 수는 없다. 市場變動을 자연적 市場條件에서 비롯된 것과 政策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좀더 자세한 分析이 필요하다. 또한 이 分析過程에서는 이미 알려진 統計

資料에 대해 논의 하느니 보다는 諸 條件變化에 따라 어떤 狀況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보다 論難의 여지가 있는 가정의 領域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世界 市場을 보다 완벽하게 分析하려면 政府 및 民間의 행동에 대한 세밀한 經濟的 모델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한 接近方法으로도 폭넓은 關係를 誘導해 내기에 충분하다. 世界 전체는 하나의 閉鎖經濟이므로 一定期間에 있어서 供給量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等式으로 표시될 수 있다.

$$S + C_0 = D + C_1$$

S : 当期供給 D : 当期消費

C₀ : 前期移入 C₁ : 次期移越

各 變數들이 變化해도 역시 위의 等式條件은 만족시켜야 하므로 위 等式은 다음과 같이 表示될 수 있다.

$$\Delta S - \Delta D = C_1 - C_0$$

위 式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年度別 變化는 安定性의 問題를 살펴보는데 사용될 수 있다. 10년 間에 걸친 變化도 이 等式으로 표시될 수 있다. 이때 ΔS 가 ΔD 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Δ 는 政策에 기인한 變化이기도 하다. 즉, Δ 를 통해 어떤 특정한 政策手段을 採用했을 경우와 採用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할 수 있다.

世界를 先進國인 1國과 後進國인 2國의 두나라로 구성된 閉鎖經濟로 생각할 때 위 等式은 1國에 대해 貿易變數를 添加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1 + M^1 + C_0^1 = D^1 + X^1 + C_1^1$$

M : 輸入 X : 輸出

여기에 2國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은 等式이 成立된다.

$$\begin{aligned} (S - D)^1 - (C_1 - C_0)^1 &= (X - M)^1 \\ &= (M - X)^2 = (D - S)^2 + (C_1 - C_0)^2 \end{aligned}$$

단, 上端의 添字 1, 2는 1國과 2國을 나타냄.

先進國인 1國의 政策의 영향은 $\Delta(S - D)^1 - \Delta(C_1 - C_0)^1$ 또는 $\Delta(X - M)^1$ 으로 표현되고 Δ 는 1國의 政策에 의해 일어나는 變化이다. 1國에서의 政策變化는 開途國인 2國에도 變化를 가져오며, 이것은 $\Delta(M - X)^2$ 또는 $\Delta(D - S)^2 + \Delta(C_1 - C_0)^2$ 로 表示된다.

이로서 우리는 貿易效果 $\Delta(X-M)^1$ 또는 構成因子 $\Delta(S-D)^1$ 과 $\Delta(C_1 - C_0)$ 에 의하여 政策이 가져오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 國內農業政策의 觀點에서 小麥市場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後者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先進國의 政策이 生産, 消費 및 在庫에 미치는 영향은 測定이 가능하다. 貿易量을 직접 統制하는 計劃經濟 國家에 대해서는 前者의 貿易效果를 직접 分析할 수 있을 것이다. 앞 等式의 右邊에서 後進國의 供給, 消費 및 在庫水準에 대한 영향을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보다 많은 情報과 자세한 分析이 필요하다. 대신에, $\Delta(M-X)^2$ 는 先進國의 政策에 의해 영향을 받는 後進國의 穀物 可用量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研究는 위의 方式으로 純貿易, 生産, 消費 및 在庫水準의 增減에 先進國의 政策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 詳細히 推定하여 보았다. 世界市場에 대한 蘇聯의 영향은 蘇聯이 純貿易의 變化에서 차지하는 위치로만 分析되었으며, 이 要因들이 종합적으로 開途國에 미치는 영향은 小麥의 可用量과 小麥價格水準 및 世界市場의 變動에 대한 의미에 국한해서만 推定되었다.

2. 生産과 貿易에 대한 政策의 含蓄的 의미

世界 小麥市場에 대한 先進國 政策의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될 일은 그 政策들이 國內 生産 및 消費에 미치는 영향을 推定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념적으로는 쉬울 듯 하지만 계산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研究에서 사용될 방법은 個別政策에 대한 情報로부터 이 政策들로 인해 生産者와 消費者在 받은 補助金을 推定하고 이것을 大략적인 彈性値를 사용하여 이 政策들이 誘導한 生産 및 消費 變化로 바꾸는 것이다. 대부분의 政策은 높은 國內 價格水準을 통하여 生産을 刺戟하고 消費를 抑制하므로 보통 生産變化는 正의 變化이나 消費變化는 負의 變化이다.

넓은 의미에서 生産者에 대한 補助金은 만약 실질적인 價格支持 政策을 없애고 이와 같은 補助金으로 代替할 경우 동일한 收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生産에 대한 單位當 補助로 推定되었다. 따라서 12%의 生産者 補助金이란 그 國家의 價格支持로 발생한 生産者 收入의 12%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價格支持政策이 없었을 경우 生産者 收入이 12%가 준다는 뜻은 아니다. 國際價格에 영향을 줄 만큼 大國인 경우에는 價格支持政策의 철제로 國際價格이 上昇하여 그 영향은 완화 될 것이다. 따라서 補助金의

철폐가 生産者 收入에 미치는 영향은 過大評價된다. 이런 過大評價에는 하나의 目的이 있다. 이 과정은 國家間에 調整되지 않은 모든 生産(消費) 效果를 더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國際價格에 대한 영향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첫 계산에서 交易條件의 변화에 따라 補助金を 調整하려면 合算하는 일이 매우 복잡해 진다. 消費者 補助金은 다른 方式으로 계산되었다. 이것은 價格支持政策의 결과로 農産物에 대한 支出이 줄어든 부분을 나타내 주며 일반적으로 負의 부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補助金 算出은 國際價格과 國內價格을 비교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政策에 관련된 財政情報과 資料들에서 얻어진다. 어떤 해의 關稅收入이라 하면 그 해의 總 關稅收入을 輸入量으로 나눈 平均關稅額이며 이것은 그만큼 國內價格을 上昇시키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때 消費者가 支拂하는 費用은 모든 消費에 적용되는 平均關稅이며 生産者에 대한 關稅의 惠沢도 모든 生産에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算出된 補助金を 彈性值을 사용하여 生産 및 消費變化로 바꾸어 나타낸 것이 <表 6>과 <表 7> 이다. <表 8>은 價格政策의 純貿易效果를 보기 위하여 두 表를 合한 것이다. 貿易效果를 計測하는데 있어서 價格

表 6. 政策으로 인한 先進國의 小麥生産增加量

단위 : 백만M/T

年 度	濠 州	캐나다	E C	日 本	英 国	美 国	計
1969/70	0.485	0.367	4.215	0.124	0.228	1.253	6.672
1970/71	0.354	0.563	4.311	0.106	0.208	1.628	7.170
1971/72	0.360	0.457	3.392	0.067	0.193	1.634	6.103
1972/73	0.410	0.727	4.941	0.068	0.341	1.580	8.057
1973/74	0.219	0.417	3.743	0.046	0.217	1.705	6.347
1974/75	-0.372	0.049	-3.242	0.021	0.132	0.858	-2.554
1975/76	-0.285	0.023	-0.285	0.026	-0.622	0.000	-1.243
1976/77	-0.080	0.004	1.981	0.029	0.264	0.000	1.670

資料 : USDA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算出.

政策이 없을 때에는 生産이 이에 반응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1968/69년의 生産者 補助金은 1969/70년의 生産水準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消費는 當該年度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資料의 부족으로 인하여 1977/78년도에 대한 政策效果는 計測할 수 없었다.

이 表의 數值들은 國家政策이 小麥生産에 미치는 영향을 一次的으로 나

타내 주는 것이다. 價格支持政策의 결과로 1973년까지 EC에서는 약 4백만 M/T의 小麥이 増産되었고 美國에서는 약 1.6백만M/T이 増産되었다. 이에 캐나다와 濠州를 합치면 價格支持政策에 의한 増産效果는 6~8백만M/T이 된다. 高價格으로 인한 消費減少도 世界市場에 대한 影響을 加重시켰다.

表 7. 政策으로 인한 先進國의 小麥消費減少量

단위 : 백만M/T

年 度	濠 州	캐나다	E C	日 本	英 国	美 国	計
1970	0.121	0.164	4.392	0.382	0.0	1.362	6.621
1971	0.137	0.134	3.815	0.357	0.0	1.743	5.829
1972	0.157	0.537	4.205	0.418	0.046	1.727	7.090
1973	0.104	0.308	2.691	0.425	0.166	1.968	5.662
1974	-0.707	-0.279	-0.264	-0.223	0.048	-0.068	-4.493
1975	-0.427	-0.261	0.916	-0.972	-1.242	-0.040	-2.026
1976	-0.092	-0.228	1.441	-0.492	-0.487	-0.013	0.130
1977	-0.062	-0.044	4.090	-0.094	0.699	-0.025	4.564

資料 : <表 6>과 同--

表 8. 政策으로 인한 先進國 純輸出의 貿易效果

단위 : 백만M/T

年 度	濠 州	캐나다	E C	日 本	英 国	美 国	計
1969/70	0.606	0.531	8.807	0.506	0.228	2.615	13.313
1970/71	0.492	0.697	8.126	0.463	0.208	3.371	13.357
1971/72	0.517	0.994	7.597	0.485	0.239	3.361	13.203
1972/73	0.514	1.035	7.632	0.483	0.507	3.548	13.739
1973/74	-0.488	0.138	0.479	-0.177	0.265	1.637	1.854
1974/75	-0.799	-0.212	-2.325	-0.951	-1.110	0.818	-4.580
1975/76	-0.377	-0.204	1.156	-0.466	-1.109	-0.012	-1.012
1976/77	-0.142	-0.040	5.056	-0.063	-0.435	-0.025	5.219

EC에서는 4.6백만M/T이나 消費가 減少했고, 美國도 2백만M/T이나 減少했다. 그러나 狀況은 1973/74 穀物 年도를 起点으로 크게 변하였다. 價格支持政策이 없었던 경우 보다는 消費는 오히려 늘었고 生産은 줄었다. 1976/77년의 數値를 보면 狀況은 다시 70년대 初期로 되돌아 가는 것 같다. 價格支持政策으로 인해 先進國의 純輸出量은 1969/70~1972/73년 사이에 年平均 13백만M/T이나 増加했으나, 1974/75년에는 오히려 4.6백만 M/T이 減少했다가 1976/77년에는 다시 5백만M/T이 増加했다.

이 數値 자체보다도 그 의미의 해석이 중요하다. 國際價格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서는 貿易效果의 크기와 특히 그 變化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결과가 小麥生産을 위해 世界가 過多한 資源費用을 支出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는 의문이다. 1972/73년의 先進國의 超過生産量 8백만M/T도 그 해 總生産量의 4%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1969~72년에 國際價格이 M/T당 60달러인데 비하여 限界資源費用은 M/T당 75달러라면, 8백만M/T의 超過生産量의 資源費用은 60백만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이 金額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農業生産額에 비하면 적은 額數이다. 반면에 그 數値는 價格支持下에서 1M/T의 밀을 더 生産하는 데는 資源利用에 필요한 것보다 25~30%의 費用이 더 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價格支持가 없어도 先進國의 小麥生産水準은 상당히 높을 것이므로, 價格支持政策으로 追加生産되는 小麥은 世界를 위해서는 값비싼 食糧資源의 源泉이 될 것이다.

이 政策이 미치는 영향의 또 다른 重要性은 價格支持에 의해 誘導된 生産量과 消費量을 開發途上國의 輸入需要와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表 4>를 보면 주요 開發途上國의 小麥輸入量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增加하고 있다. 1970년대 初期 先進國의 「追加」小麥輸出量 13백만M/T은 開發途上國의 總 小麥輸入量의 半 이상이 되었다. 그 輸入量의 상당한 부분은 先進國의 價格支持政策으로 일어난 剩餘에 직접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 剩餘가 開發途上國에 移轉된 것이었다. 그 후 狀況은 크게 변하여 1973~75년 사이의 食糧不足 時期에는 전반적으로 先進國의 價格支持政策이 開發途上國의 小麥輸入에 阻害要因이 되었다. 剩餘生産이 다시 발생한 1976/77년까지는 先進國 政策의 貿易效果가 開發途上國 輸入量의 15% 밖에 안될 정도로 開發途上國의 輸入量이 急增했다.

3. 世界市場에 있어서 價格水準의 含蓄의 의미

여기서 推定된 純貿易 效果가 일반적으로 國際價格水準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精確한 推定을 하려면 世界 小麥市場에 대해 자세한 모델이 필요하겠지만 몇가지 폭넓은 가정을 세움으로써 大략적인 分析이 가능할 것이다. 先進國의 價格支持政策이 없다면 10%의 價格下落으로 世界消費가 平均 2% 增加되고 供給은 3% 減少된다고 하자. 이것은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0.2, 供給의 價格彈力性이 0.3임을 의미하며 이 數値들은 모두 經驗的 研究로 얻어진 推定值의 범위안에 있는 것이다. 國際 市場價格이

1960년대 後半과 같이 M/T당 70달러 정도이고, 世界全体的 生産量과 消費量이 320백만M/T이라고 가정할 때 消費抑制 또는 生産増加를 통하여 1969/70년의 경우처럼 13.3백만M/T의 小麥이 追加輸出되면 이 弾力性은 國際價格이 M/T당 5.8달러가 下落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나라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國際價格에 따라 自國의 需要와 供給의 價格彈力性을 0.1까지 줄이는 貿易制限措置를 취하면 國際價格은 M/T당 7.8달러나 떨어질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모든 生産 및 消費 調整이 先進國 자체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들의 政策은 國際價格을 M/T당 10.34달러나 하락시킬 것이다. 다시 말하여 先進國 政府가 價格支持를 하지 않았다면 그 期間동안의 國際價格은 M/T당 5~10달러가 올랐을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價格效果問題이다. 예를 들면, 1960년대 國際小麥價格이 M/T당 68달러가 아니라 75달러였다면 다른 國家의 農業發展形態가 상당히 변했을 것인가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이 問題는 경우에 따라 대담이 달라질 성질의 것이지만 先進國의 價格政策이 開發途上國의 農業에 미친 惡影響이나 또는 低價格으로 開發途上國의 消費者에게 준 利得가운데 어느 한 面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1960년대 末 22백만M/T의 小麥을 輸入한 開發途上國이 交易條件上으로 얻은 純利得은 매년 1.1~1.2億달러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IV. 先進國의 農業政策이 市場安定에 미치는 영향

1. 在庫 및 政策效果의 變化

先進國의 農業保護政策이 世界 小麥市場에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치는 간에 先進國의 小麥貿易支配 때문에 그 政策의 단기적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이 問題를 살펴 보기 위해 앞 章의 等式을 다시 檢討해 보기로 하자. $\Delta(S-D)^1 - \Delta(C_1 - C_0)^1$ 과 $\Delta(X-M)^1$ 이 政策의 有無의 차이이기 보다는 年度別 政策效果의 變化를 나타낸다고 가정하자. 한 國家의 政策이 國內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지만 國際市場 여건이 변함으로써 이와 같은 政策效果의 變化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年度別 變化는 政策에 대한 調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政策이 변화한 것

처럼 보이는 것이다. 또 어떤 政策의 純貿易 效果가 동일하다면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政策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그 國家 內부의 政策決定者는 貿易效果가 변하지 않게 하려면 國內價格을 계속 調整해 나가야 한다. 다음에 논의할 「政策變化」는 이런 面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 章에서는 世界 市場에 대한 장기적 政策效果에 있어서 在庫가 차지하는 위치를 본 바 있다. 확실치는 않지만 일반적 在庫水準이 國際價格에 영향을 미칠 可能性도 있다. 특히 在庫는 短期的으로 重要的 의미를 갖는다. 4 章에서는 政策과 在庫가 國際價格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매년의 市場均衡에 미치는 政策의 영향에 대한 分析은 앞 章에서 이어지는 것이다. 개별 先進國의 경우 小麥의 消費, 生産 및 純貿易에 미치는 小麥政策의 영향은 年度別로 계산이 可能했으나, 在庫政策은 그 性質上 定義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나라는 政府在庫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民間備蓄을 유도하기 위해 貯藏에 補助金을 준다. 民間在庫의 변화는 國內市場의 價格變動에 따라 움직일 것이므로 民間在庫는 간접적으로 價格政策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政府政策이 갖는 의미를 넓히게 되지만, 실질적 在庫의 움직임을 在庫政策의 效果로 보는 것이 分析上 편리할 것이다.

表 9. 先進國과 蘇聯의 小麥在庫 變化

단위: 백만M/T

年 度	先 進 國 ¹⁾				蘇 聯			
	期末在庫	在庫變化 ²⁾	變化率 ³⁾	累積變化 ⁴⁾	期末在庫	在庫變化 ²⁾	變化率 ³⁾	累積變化 ⁴⁾
1967/68	44.6	5.0	-	5.0	29.0	- 2.0	-	- 2.0
1968/69	64.8	20.2	15.2	25.2	31.0	2.0	4.0	0.0
1969/70	67.6	2.8	-17.4	28.0	12.0	19.0	-21.0	-19.0
1970/71	52.3	-15.3	-18.0	12.7	4.0	- 8.0	11.0	-27.0
1971/72	52.1	- 0.2	15.1	12.5	7.0	3.0	11.0	-24.0
1972/73	34.8	-17.3	-17.0	- 4.7	9.0	2.0	- 1.0	-22.0
1973/74	29.5	- 5.3	11.9	-10.0	23.0	14.0	12.0	- 8.0
1974/75	32.3	2.8	8.1	- 7.2	12.0	-11.0	-25.0	-19.0
1975/76	37.9	5.6	2.7	- 1.7	4.0	- 8.0	3.0	-27.0
1976/77	54.1	16.2	10.7	14.6	16.0	12.0	20.0	-15.0

1) 濠洲, 캐나다, EC, 日本, 英國 및 美國.

2) 前年對比 期末在庫 増減.

3) 2)의 前年對比 増減으로서 (+)値는 在庫의 빠른 増加 또는 느린 減少를 나타냄.

4) 1966/67년과 비교한 相對的 在庫水準.

資料: <表 1>과 同.

〈表9〉는 이 期間의 小麥在庫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 表는 期末在庫와 在庫増減量 이외에 年度別 在庫増減率의 변화도 보여 준다. 이 數値들이 크면 클수록 世界 市場의 安定性에 미치는 潛在的 影響力은 커진다. 이 表에서 價格이 上昇하든 下落하든 間에 正의 値는 價格上昇 要因을, 負의 値는 價格下落 要因을 나타낸다. 先進資本主義 國家의 경우 價格下落 要因은 在庫增加가 둔화된 1969/70년, 在庫增加가 減少로 轉換한 1970/71년, 在庫가 急落한 1972/73년에 明白하게 나타난다. 1969/70년과 1970/71년의 在庫政策은 剩餘의 累積을 줄이기 위한 國內의 壓力을 반영한 것이었다. 반면에 1972/73년의 現狀은 蘇聯의 大量需要에 기인한 것이었다. 1970/71년, 1974/75년을 제외하고는 蘇聯과 先進國의 在庫의 變化率은 같은 움직임을 나타냈다. 따라서 實質在庫의 변화가 반대 방향일 때에도(10년중 7년), 價格變化率에 대한 壓力은 폭넓게 進行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表9〉에서 在庫의 累積變化는 임의의 基準年度 1966/67년에 대한 年度別 상대적 在庫水準을 나타낸다. 在庫變化를 보면 1970/71~1973/74년 期間에 先進國은 처음에는 높은 貯藏費用에 대한 반응으로 다음에는 海外需要 增大와 高價格에 대한 반응으로 전반적인 世界市場에 대한 供給量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지만, 在庫의 累積變化를 보면 1966/67년에 비해 1971/72년까지는 상대적으로 購入可能한 在庫量이 많았고, 1972/73~1975/76년에는 이 在庫量이 줄어 들었다. 在庫增加 그 자체가 價格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면 在庫의 累積變化는 이 期間의 小麥市場의 狀況變化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蘇聯은 1968/69년 한 해에만 1966/67년의 在庫水準을 유지했을 뿐이다.

이와 같이 在庫變化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政府政策의 一環으로 볼 때 이 변화는 生産과 消費에 영향을 미치는 價格政策의 결과와 비교될 수 있다. 〈表10〉은 貿易效果, 在庫政策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在庫變化와 兩者의 합계를 나타낸다. 두 효과 모두 政府의 國內價格目標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서로 獨立的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서로 補完作用을 하고 있는 것이다. 在庫 및 政策效果는 1972/73년에 在庫減少와 價格政策에 의한 剩餘의 발생으로 약 31백만M/T으로 推定되어 分析期間中 最高水準을 기록했다. 1974/75년의 이 효과는 -7.4백만M/T이었던

表10. 政策에 의해 誘導된 先進國과 蘇聯의 貿易效果 및 小麥在庫 變化

단위: 백만M/T

年 度	先進國 貿易效果 (A)	先進國 ¹⁾ 在庫變化 (B)	先進國의 政策效果 (A+B)	在庫 및 前年對比 ²⁾ 增 減	蘇聯의 在庫變化 (C)	總 效 果	
						(A+B+C)	前年對比 ²⁾ 增 減
1969/70	13.3	- 2.8	10.5	-	19.0	29.5	-
1970/71	13.4	15.3	28.6	18.1	8.0	36.7	7.2
1971/72	13.2	0.2	13.4	-15.2	- 3.0	10.4	-26.3
1972/73	13.7	17.2	31.0	17.6	- 2.0	29.0	18.6
1973/74	1.9	5.3	7.2	-23.8	-14.0	- 6.8	-35.8
1974/75	-4.6	- 2.8	- 7.4	-14.6	11.0	3.6	10.4
1975/76	-1.0	- 5.6	- 6.6	1.9	8.0	1.4	- 2.2
1976/77	5.2	-16.3	-11.1	- 4.0	-12.0	-23.1	-24.5

1) (+)値는 在庫減少 임.

2) (+)値는 增加를 나타냄.

資料: <表8>과 <表9>에서 算出.

데 이는 價格政策이 純 供給量을 減少시킨 데다가 在庫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效果의 前年對比 增減을 보면 1973/74년에는 거의 24백만M/T에 달했고, 1973/74~1974/75년의 2년 동안에는 38.4백만M/T으로서 供給량이 그 만큼 減少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38.4백만M/T이 市場에 出荷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價格支持政策이 없고 在庫水準이 不變이었다면 이 期間동안 38.4백만M/T의 小麥이 世界市場에 더 供給되었더라도 國際市場價格은 동일했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數値는 이 期間의 小麥市場의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큰 것이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先進國의 在庫 및 價格支持政策으로 小麥의 不足이 招來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政策이 支配하는 市場에서 生産變動은 이와 같은 構造的 要因이 없이 小麥供給量을 38.4백만M/T 줄이고서도 價格에 같은 효과를 미쳤다.

2. 國際 價格變動이 갖는 의미

先進國의 價格政策 및 在庫政策이 없었다면 1973/74년의 國際 小麥價格은 M/T당 170달러보다 약간 더 높았을 것이다. 同年의 小麥 供給量은 在庫放出과 價格保護로 인해 自由市場이 존재하고 先進國의 在庫水準이 불변이었을때 보다 7백만M/T이 더 늘었다. 반면에 1974/75년 이후에는 先

進國의 政策이 없었다면 國際價格은 오히려 약간 낮았을 것이다. 1973년의 高價格이 先進國의 政策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1973년 初의 價格이 높은 편이었으므로 그 후 그렇게 까지 價格이 暴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食糧危機도 그리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蘇聯이 14백만M/T의 小麥을 輸入한 1972/73년은 在庫水準도 적당했고 價格支持에 의한 剩餘도 있었던 시기였다. 輸入國으로서의 蘇聯의 世界市場介入은 在庫가 충분히 있고 값비싼 國內政策으로 支出이 많은 輸出國의 환영을 받았다. 蘇聯의 在庫는 이미 1972/73년 이전에 減少했다. 先進國의 在庫放出이 없었다면 1972년의 國際價格은 상당히 올랐을 것이다. 어쨌든 이 행동의 영향은 다음해에 나타났다. 蘇聯은 先進國의 在庫減少와 剩餘生産을 吸收하고도 남는 豐作으로 在庫를 늘리게 되었다. 蘇聯과 先進國의 在庫政策(및 先進國의 價格支持政策)의 總效果는 1973/74년에 供給量을 거의 7백만M/T이나 減少시키는 것이었다. 價格變化에 영향을 준 것은 이 효과와 前年の 效果間에 차이였다. 이 차이는 1972/73년과 1973/74년 사이에 거의 36백만M/T에 달했다. 先進國의 生産이 줄어 들었던 時期(또한 에너지를 비롯하여 輸入品價格이 急騰한 時期)에 일어난 이 市場壓迫은 平均 輸出價格을 1년 동안에 70%나 오르게 한 主因이 되었다. 1974/75년의 世界小麥市場은 蘇聯이 11백만M/T의 在庫를 放出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惡化되었을 것이다. 이 해에 蘇聯 및 先進國의 在庫 및 價格政策 效果로 世界市場의 小麥供給量은 前年보다 10백만M/T이 늘어났다.

이상에서 이 시기의 先進國 政策은 본의는 아니지만 生産變動에서 야기된 問題를 惡化시켰다는 결론이 나온다. 在庫政策은 國內價格政策의 영향을 相殺한 것이 아니라 1970/71~1975/76년에 해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오히려 이 영향을 強化시켜 주었다. 이것이 바로 問題의 핵심이다. 國際價格安定을 위해서는 國內政策으로 過剩生産이 초래될 때 在庫는 늘어나야 하고, 國內價格의 安定目標上 國內供給量이 增大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在庫는 減少되어야 한다. 1970년대 初半에 政策은 이런 式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在庫는 國內過剩生産量의 輸出을 위해서 世界市場으로 放出되었고, 自由市場인 경우보다 消費는 높고 生産이 낮은 시기에는 在庫가 늘어났다. 이것이 國際價格安定에 미치는 先進國 國內政

策의 주요한 영향이다.

V. 世界 市場條件에 대한 政策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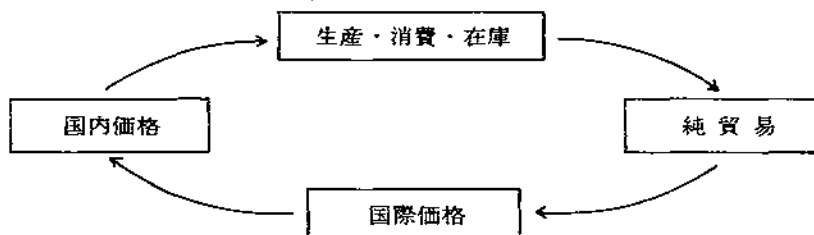
1. 國際價格과 國內 支持價格

IV章에서는 國內 價格政策과 在庫運營이 世界 市場條件과 調整이 잘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國內政策의 움직임은 本 研究에서 고찰된 모든 先進國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世界市場의 움직임과 乘離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 問題를 더 分析하기 위해서는 世界市場이 國內政策 및 在庫決定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직접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와 같은 반응의 정도는 先進國의 政策이 世界 小麥市場의 構造問題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IV章에서는 國際價格에 영향을 미치는 國內 價格政策과 在庫政策의 量的인 相互作用과 國際價格에 대한 그 영향이 논의되었다. 國內價格과 國際價格의 連貫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영향력은 커진다. 國際價格이 낮을 때 國內價格도 낮다면 生産은 줄고 消費와 在庫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國際價格은 市場均衡 상태에 따라 변동하지만 그것은 價格彈力性의 한계 안에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連貫성이 적고 生産은 많은데 消費가 적으면 在庫累積은 國際價格을 下落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國際價格과 國內 政策價格 間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國際價格이 낮으면 輸出國의 價格支持에 따른 費用을 增加시켜 國內 政策價格은 下向調整 壓迫을 받게 될 것이다. 國際價格이 높으면 이러한 制約이 줄어들어 輸入國과 輸出國에서 모두 反인플레이 計劃下에서도 가능한 범위까지 國內 政策價格을 올릴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간접적 관계는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다.



自由貿易下에서는 國際價格이 직접적으로 生産, 消費 및 貿易決定에 영향을 미친다. 政府의 價格支持政策下에서는 이 관계가 國內 政策價格水準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國際價格과 國內 政策價格을 직접 비교해 보면 그 연관성의 問題, 나아가서는 市場 不安定의 問題가 밝혀질 것이다.

〈表11〉은 小麥의 國內 生産者 價格과 國際價格 間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線型回歸方程式의 係數는 國際價格 1달러 상승에 따른 國內價格의 上昇程度(M/T當 달러)를 나타낸다. 日本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係數는 1보다 작다. 日本은 분명히 小麥의 國際價格이 높을 때는 國內價格을 크게 올리는 過大反應을 보였다. 캐나다는 0.86, 美國은 0.84로 國內 價格上昇이 國際 價格上昇과 비슷했다. 프랑스의 價格 反應度는 0.59로 가장 낮았다. 그의 유럽이나 濠州는 中間 水準이었다.

表11. 先進國의 國際小麥價格에 대한 國內小麥價格의 回歸方程式¹⁾
(1968/69~1975/76)

國 別	常 數	回歸係數 ²⁾	R ²	P _w =100일때의 P _n ³⁾
濠 州	14.83	0.66	0.85	80.8
캐 나 다	12.80	0.86	0.66	98.8
E C				
이탈리아	80.10	0.62	0.78	142.1
프 랑 스	56.26	0.59	0.88	115.3
네덜란드	67.56	0.64	0.82	131.6
벨기에, 룩셈부르크	65.72	0.64	0.81	129.7
독 일	63.48	0.78	0.83	141.5
英 國	41.70	0.68	0.71	109.7
日 本	66.81	1.70	0.90	236.8
美 國	1.59	0.84	0.74	85.6

1) 國內小麥價格(P_n)=a+b, 國際小麥價格(P_w)을 利用.

2) 모든 계수는 95% 水準에서 有意的.

3) 1)의 式에서 P_w=100일때의 P_n을 뜻함.

이 表를 해석하는 데도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로 國內價格을 달러로 표시하면 부분적으로 各國의 다양한 인플레이率在 調整되기는 하지만, 모든 國內價格은 分析期間의 인플레이 進行의 영향을 받는다. 그 期間에 國際價格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推定된 函數는 인플레이率이 낮을 때나 또는 國際價格이 꾸준히 下落할 때에는 타당치 않을 수도 있다. 둘째로 國際價格

과 国内價格의 관계를 단순 회귀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나라마다 다른 복잡한 價格 關係를 公正하게 評價하기는 어려우리라 본다. 여기서 推定된 것은 정확한 因果 關係가 아니라 國際 價格變化가 갖는 의미일 뿐이다. 그러나 이 결과에서 国内 政策價格이 分析期間에 世界 市場條件을 반영했고, 따라서 兩者間의 간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表11〉은 또한 各國 政府의 国内 小麥政策의 두가지 側面을 보여 준다. 國際 價格變化에 대한 反應係數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는데 이 係數가 높으면 높을수록 國際價格에 대한 調整負擔은 国内에서 지게 된다. 그러나 國際價格과 관련된 国内 價格水準은 여러 가지 價格水準에서의 保護程度를 나타내 준다. 이 方程式의 常數項 P_n 은 $P_w=0$ 일때의 P_n 이므로 별로 흥미가 없는 것이며, 이 보다는 마지막 列이 保護程度를 더욱 잘 나타낸다. 이것은 國際價格이 M/T當 100달러($P_w=100$)일때의 国内 價格水準(P_n)으로서 各國의 保護程度를 잘 나타내 준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면, 國際價格이 M/T當 100달러 일때의 国内價格은 日本이 237달러, 이탈리아가 142달러, 독일이 141달러였을 것이다. 輸出國의 生産者는 小麥價格이 올랐을때 輸出價格의 완전한 혜택을 못받아 왔고, 港口까지의 運送費는 자기 負擔이 될 것이므로 受取價格은 100달러 이하가 될 것이다. 各國의 国内 價格水準은 日本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各國이 保護障壁을 제거할 경우($P_w=P_n$)의 價格은 나라에 따라 격차가 심할 것이다. 예를 들어 英國에서는 M/T當 130달러이고, 독일에서는 288달러가 될 것이다.

国内 價格水準과 國際 價格變化에 대한 그 반응을 보면, 주요 輸出國인 캐나다와 美國이 다른 先進國들 보다 國際價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고 保護水準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濠州는 獨逸이나 英國보다 保護水準은 낮으나 價格反應度는 작다. 이탈리아, 프랑스 및 베네룩스 3國은 다른 國家들 보다 保護水準이 높고 價格反應度는 작은 듯 하다 (프랑스의 保護水準은 기타 EC 國家들에 비해 적당한 편이다).

2. 國際價格과 政策의 貿易效果

개별 政策에 의한 貿易效果 分析은 国内政策의 價格 反應度가 갖는 의미를 탐구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世界市場과 国内市場 間의 價格關係의

重要性은 生産 및 消費 變化에 의해 나타나는 政策效果와 在庫水準에 대한 영향을 통해 입증된다. 貿易에 대한 價格 및 政策效果와 世界 市場條件과의 관계를 우선 살펴보자.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國內價格의 安定政策이 널리 施行되면 貿易效果는 國際價格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은 분명하다. 國際價格이 낮으면 國內 支持價格으로 인한 增産量과 消費減少량이 커져 이로 인한 剩餘水準(生産增加分과 消費減少分の 合計)은 높아질 것이다.

〈表12〉는 國際價格과 貿易效果의 回歸方程式의 결과이다. 零에 가까운 係數는 國際價格이 변화해도 保護水準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나타낸다. 캐나다와 英國의 係數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는 日本, 濠洲, 美國, EC의 順이다. 이 國家들의 政策의 總體的 效果는 이 國家들의 係數의 合計를 보면 測定될 수 있다. 國際價格이 M/T당 10달러 上昇하면 貿易에 대한 保護의 效果와 貿易量이 1.5백만M/T이 減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自由市場 條件下에서 生産이 8백만M/T 減少하여 價格이 M/T당 10달러 上昇하면 현재의 各國의 保護政策下에서는 6.5백만M/T만 生産이 減少해도 價格은 10달러 上昇할 것이다.

表12. 國際小麥價格에 대한 小麥政策의 貿易效果의 回歸方程式¹⁾과 貿易中立價格

國 別	常 數	回歸係數 ²⁾	R ²	貿易中立價格 ³⁾
濠 洲	1.3095	-0.0115	0.82	113.87
캐 나 다	1.2916	-0.0084	0.51	153.76
E C	14.3990	-0.0889	0.85	161.97
日 本	1.1746	-0.0103	0.67	114.04
英 國	0.8901	-0.0084	0.31	105.96
美 國	4.3899	-0.0224	0.42	195.98
全 體	23.4730	-0.1499	0.77	156.59

1) 다음 方程式을 利用: $TVE(\text{貿易效果}) = a + bP_w(\text{國際價格})$.

2) 英國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係數는 95% 수준에서 有意的.

3) 1)式에서 $TVE = 0$ 로 놓았을 때의 P_w .

節片 ($P_w = 0$ 일때)은 별로 유의할 必要가 없지만 이 表는 貿易效果가 零일 때의 國際價格을 보여주고 있다. 이 貿易中立價格은 단순히 政府가 農業所得 保護政策에서 都市 消費者의 食品費를 減少시키는 政策으로 轉換할 때의 價格이다. 英國, 濠洲 및 日本의 경우처럼 이 價格이 낮은 것은 이 國家들이 生産者 保護水準을 줄임으로써 安價를 統制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와 EC는 이 價格이 높은 편이며, 美國은 國際價格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만 消費者 支援政策으로 轉換하려는 것 같다. 평균적으로 國際價格이 M/T당 157달러일때 이 나라들의 生産者 保護水準은 쏠이 될 것이나, 各國의 貿易中立價格이 다른 것은 各國의 小麥政策이 서로 다른 目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상의 관계가 앞에서 논의된 國內價格과 國際價格 間의 相關關係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國際價格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만 農民保護를 철폐하는 나라는 國際價格에 非反應的인 高價格政策을 쓰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렇지만은 않다. 國內價格과 國際價格이 相關關係가 1에 가까운 것은 비교적 固定된 保護水準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美國의 경우처럼 國際價格에 대한 貿易效果의 反應係數는 낮고 貿易中立的 價格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EC의 경우와 같이 國內價格이 높고 비교적 非反應的인 價格體系에서는 國際價格은 上昇하는 반면, 國內 價格水準을 安定的으로 유지하기 위해 消費者 支援措置(예를 들어 輸出稅)가 요구될 때는 生産者 保護水準이 급격히 減少하게 된다. 따라서 世界市場의 價格安定面과 輸入國인 開發途上國의 利害面에서 볼 때 國際價格에 대해 國內 政策價格의 反應度는 높고 政策에 의해 유도된 貿易效果는 낮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3. 國際價格과 國內在庫

在庫政策이 世界市場에 미치는 國內 價格政策의 영향을 相殺하거나 加重시킨다면 國際價格을 安定시키기 위해서는 國內 價格變化에 대응하여 在庫가 조정되어야 한다. 政策의 貿易效果가 직접 國際價格에 관련될 수 있듯이 在庫水準도 마찬가지다. 在庫變化는 한 國家의 政策이 世界 市場 均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시켜 주며 在庫變化의 重要한 決定因子는 移越量이다. 移入은 어느 特定年度에 이미 결정되어 供給 可能量의 일부분이 된다. 移越량이 國際 價格水準에 쉽게 반응하면 할수록, 特定 在庫政策은 世界市場을 더욱 安定시킨다.

<表13>은 國際價格에 대한 小麥 移越水準의 單純回帰 方程式이다. 在庫가 世界市場의 安定作用을 하려면 係數는 美國과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쏠보다 훨씬 작은 負値이어야 한다. 특히 캐나다는 상당히 價格反應的인

表13. 先進국의 小麦 國際價格과 移越在庫間の 回帰方程式¹⁾ 1968/69~1975/76

国 別	常 数	回帰係數 ²⁾	R ²
濠 洲	5.91	-0.027	0.23
캐 나 다	28.80	-0.129 *	0.72
E C			
벨 기 에	0.11	0.002 *	0.40
룩셈부르크	-0.02	0.002 *	0.69
네 델 란 드	0.71	0.007	0.29
프 랑 스	2.20	0.003	0.04
독 일	1.09	0.001	0.01
이 탈 리 아	1.08	0.002	0.22
英 国	0.79	0.003 *	0.45
日 本	30.43	-0.097 *	0.38
美 国	17.60	-0.027	0.02
蘇 聯	72.33	-0.250 *	0.65
全体(蘇聯제외)	90.07	-0.280 *	0.46
全体(蘇聯포함)			

1) 다음 방정식을 이용: 移越在庫(期末在庫)=a+b, b×國際價格.

2) *는 95%에서 有意的.

在庫政策을 써 왔음을 알 수 있다. 美国과 캐나다는 國際價格이 M/T당 10달러 上昇할 때마다 이 表의 나머지 先進국의 合計와 맞먹는 2.4 백만 M/T의 小麦을 放出했다. 이 量은 價格政策의 逆效果 1.5백만M/T을 相殺하고도 남음이 있다. 즉 美国과 캐나다의 在庫 및 價格政策은 總体的으로 世界 市場安定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濠洲와 蘇聯이 世界 市場安定에 기여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移越에 대한 價格係數가 負値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統計的으로 有意性은 없다. 그러므로 國際價格은 在庫水準을 말해 주는 적합한 變數는 아닌 것 같다. 價格이 높을 때 国内 供給量을 확보하는데 애쓰는 輸入国인 日本과 英國은 역시 이 價格係數가 正의 値를 보였다. 그러나 重要한 貿易国이기는 하지만 主要 生産国과 비교할 때 貿易量이 적은 國家들에 있어서 予想되듯이 이들의 價格政策이나 在庫政策이 國際 價格安定에 미치는 逆效果는 적은 편이다.

小麦在庫의 價格 反應度에 관하여 國際 價格安定上 매우 重要한 問題는 EC의 행동에 있다.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 價格 反應係數들이 거의 零에 가깝기는 하지만 모든 EC國家의 係數는 正의 數値를 나타내고 있어 EC의 在庫가 國際價格을 安定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國內價格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면 民間在庫가 國際 價格變化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公共機關의 在庫는 國內 및 世界的 供給不足 사태에 대한 緩衝役割을 하기 보다는 國內 價格政策의 약점에 의해 露出되는 剩餘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정적인 國內 價格政策과 아울러 EC 在庫의 反應性 결여는 世界 小麥市場에서 매우 중요하다.

〈表14〉는 國際價格이 M/T당 10달러 오를 때 價格政策과 移越在庫가 갖는 의미를 나타낸다. 總 効果는 貿易量에 대한 價格政策의 효과에서 移越在庫에 대한 효과를 뺀 것이다. 各國의 總 効果의 합계는 國際價格이 M/T당 10달러 오를 때 이 國家들에서 放出된 小麥 83萬M/T의 世界 市場安定에 대한 純 寄与度를 나타낸다. 이 量은 이 나라들의 과거 10년 間의 供給變動量 40백萬M/T에 비하면 크지 않으나 적어도 先進國 政策의 總 効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表14. 國際 小麥價格 M/T당 10달러 上昇時의
貿易效果와 移越在庫

단위: 百萬M/T

國 別	貿易效果(1)	移越在庫(2)	總效果(1)-(2)
濠 洲	-0.12	-0.27	0.15
캐 나 다	-0.08	-1.29	1.21
E C	-0.89	0.15	-1.04
日 本	-0.10	0.03	-0.13
英 國	-0.08	0.02	-0.10
美 國	-0.22	-0.97	0.75
全 體	-1.50	-2.33	0.83

資料: 〈表12〉 및 〈表13〉에서 算出.

캐나다의 1.21백萬M/T과 EC의 -1.04백萬M/T의 寄与度を 비교해 보면, 負擔의 分担問題가 확연히 드러난다. 濠洲와 美國도 世界 市場安定에 기여했으나 두 輸入國 日本과 英國은 약간 不安定한 影響을 미치는 政策을 썼다. 開發途上國들은 市場安定에 누가 기여하는지에 관심이 없겠지만 유럽의 國內政策이 國際 價格安定에 계속 해로운 影響을 미칠 경우 캐나다와 美國이 世界市場을 惡化시키게 될 政策으로 이끌어 가게 할 지도 모르는 불균형의 해소에는 관심이 있을 것이다. 負擔의 分担은 市場安定을 增進하려는 國際的 시도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國際 價格變化에 대한 各國의 反應의 차이는 世界 市場安定을 위한 費用의 配分에 합리적 근거

를 준다. 各國 政府가 자국의 價格政策이 世界市場에 미치는 효과를 伸縮的인 在庫調節로서 相殺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相互依存的인 世界에서 상당히 妥当性이 있는 것이다.

VI. 앞으로의 政策方向

지난 10년 間의 小麥市場과 그 市場에 대한 國內 價格政策의 영향을 살펴본 바 資源配分과 단기적 위기의 調節能力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I章에서는 주요 國家와 國際市場에 대한 특수한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의도는 個別 國家나 또는 世界的인 協定에 구체적인 勸告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開發途上國에 바람직한 政策을 보려는 것이다. 穀物貿易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감안하여 다른 先進國보다 EC와 美國의 政策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1. 國家의 수준의 政策變化: EC

EC의 政策이 世界市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共同農業政策의 概念을 따져 볼 必要性이나 유럽의 經濟的, 政治的 統合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共同農業政策은 그 目標達成에 성공하여 世界貿易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共同 農業政策의 결과 農業所得과 物價는 비교적 安定되었고 農家所得水準은 非農家 所得水準과 비슷한 趨勢를 보였다. 이런 성공은 세계적으로, 특히 EC와 밀접한 交易關係에 있는 나라들의 환영을 받지는 못했다. 共同農業政策의 성공은 EC의 政策變化가 國際關係를 개선하려는 方向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EC의 農業政策은 여러 가지 面에서 다른 先進國의 農業政策과 비슷하다. 이 政策은 國內에서 生産된 農産物의 安定的 需要増大를 目標로 하고 있다. 그러나 EC의 農業政策은 그 特殊性이 있으며 이것은 本章에서 다룰 중요한 課題이다. 첫째, 國內市場의 支持와 安定을 위해 輸出補助金에 의한 貿易調節과 각종의 輸入關稅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直接保護, 生産制限, 國內流通機關 및 在庫와 備蓄調節 등의 代案의 조치에 대한 의존도는 비교

적 낮다. 동일한 保護水準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國內 市場政策보다도 貿易 調節과 輸入關稅 등의 國境政策이 貿易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정한 保護水準下에서 이 政策의 價格抑制 效果는 다른 代案的 조치가 채택된 경우보다 훨씬 클 것이다.

두번째로 EC 農業政策의 특징은 輸入國인 日本과 마찬가지로 保護水準이 일반적으로 높은 것이다. EC에서 주요 貿易財의 國內 價格水準은 財政的 壓迫과 消費者의 불만에 의해 世界 市場條件에 연결되나, 이것이 農業 生産費의 上昇과 農家所得 支援政策에 따른 生産者價格의 上昇傾向을 상쇄할 만큼은 되지 못한다. 이 傾向은 독일이나 베네룩스 國家들의 경우와 같이 共同農業政策의 정신에 반하여 政府가 換率의 評價切上 效果를 農民에게 補償해 주는 나라에서 특히 강하다. 유럽 農業의 保護水準 및 범위는 유럽의 政策決定이 國際價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규정짓는다.

EC 農産物 貿易政策의 세번째 특징은 輸入關稅와 輸出補助金 政策의 성격이다. EC 國家들은 世界 市場安定에 도움이 될 수 있는 生産, 消費 및 民間在庫 등의 調整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EC의 政策은 다른 나라들의 단기적 不安定 問題를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貿易制限措置, 保護水準 및 각종 輸入關稅와 輸出補助는 모두 EC의 政策이 世界市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EC 農業政策의 發展과 그것이 開發途上國에 갖는 의미는 세가지 중요한 問題에 귀착된다. 가장 중요한 問題는 EC가 共同農業政策下에서 策定된 國內價格을 調整할 수 있는 범위이다. EC域內에서 현재의 높은 價格이 갖는 財政的 의미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다. EC에서는 農産物價格이 두 번 急騰하였는데, 그 첫번째는 共同農業政策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기인 1960년대 중엽이고, 두번째는 國內 인플레이의 여파로 그 10년 後에 일어난 것이었다. 農業에 대한 現行 換率制의 撤廢 또는 인플레이率의 上昇으로 인한 單一價格體制로의 急轉이 이 循環을 막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반복될 수도 있다. 또한 유럽과 世界市場의 農産物價格 間의 미약한 關係의 일면인, 달러의 價值下落으로 인한 事實상의 保護水準의 上昇도 관심사이다. 달러貨의 계속적인 弱勢와 마르크貨의 強勢는 이 問題를 惡化시킬 것이다.

두번째 問題는 EC의 政策이 國際的 商品協定, 보다 일반적으로 GATT

에서 토의된 貿易關係의 發展과 일치될 수 있는 범위이다. 오랫동안 世界市場을 규제할 商品協定을 찬성해 온 EC는 설탕과 小麥에 대해서만은, 이 農産物의 貿易에서 상당한 利益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效果의으로 협상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問題는 이 國際協定下에서 EC의 國內政策이 調整될 수 있는 범위였다. 小麥의 경우, EC는 만성적 供給過剩의 時期에 미리 在庫를 蓄積시키고 궁극적으로 生産을 制限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와 같은 國際的 기대는 國內 市場條件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國際市場을 國內政策으로 생긴 壓力을 排出하는 安全裝置로 사용하려는 생각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理由 때문에 多者間 貿易協定の 진전은 制限되었다. 예를 들어 效率的인 輸出補助政策은 共同農業政策의 적용과 직접 충돌하게 된다.

세 번째 問題는 EC가 사용한 價格支持方法이다. EC內에서는 穀物에 대해서 더욱 價格伸縮的인 糧穀管理 赤字計劃이나, 植付面積制限, 市場供給量 制限 또는 市場條件과 支持價格의 連動制 등을 통하여 供給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糧穀管理 赤字計劃은 對內的으로 상당히 유리하나 財政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會員國間의 分配에도 큰 問題가 있고, 財政의 부담이 EC 機構를 통해 이루어지면 政治問題化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大量의 小麥과 飼料穀이 EC에 輸入될 경우에는 供給調整은 政治的으로 어려운 問題가 된다.

복잡한 問題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잘 짜여진 政策에서 흔히 그렇듯이 共同農業政策이 갖는 國內 및 國際的 側面的 兩立性을 改善하기 위해 한가지 方法만 취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고 現狀維持 조차도 힘들 것이다. 현재의 政策을 수정하라는 壓力은 거의 EC 域內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消費者 및 納稅者의 불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EC 財政과 交易關係를 통한 EC 會員國 間의 分配不平等에서 나온다. 이 問題의 해결은 현재 EC內 輸出國에 유리하게 형성된 EC의 保護主義政策이 共同農業支持政策에 따른 費用을 支拂해야 하는 域內 輸入國의 반응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 범위에 달려있다. EC의 農業財政은 이미 그 支出의 限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問題는 焦點을 모으고 있다. 또한 그리스,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세 新規加入國 때문에 일어날 費用問題도 있을 것이다. 世界市場의 效率性과 安定이 EC 內部的으로는 중요한 問題가 아니지만, 유럽 農業政策

變化의 時期는 共同農業政策의 내부적인 면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면도 調整할 기회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2. 國家的 水準의 政策變化: 美國

美國이 당면하고 있는 問題는 EC와 상당히 다르다. 輸出增大를 원하는 美國은 世界市場을 國內需要에 꼭 필요한 존재로 보고있다. 國內 支持政策 下에서 設定된 價格水準, 在庫政策, 輸出国 間의 協調可能性 및 流通에 대한 政府의 介入範圍 등이 主要 政策課題이다.

所得을 고려한 目標價格과 市場條件을 고려한 貸付率을 設定할 수 있게 된 1973년의 農業調整法의 伸縮性은 國內政策과 對外政策 間의 실질적 또는 潛在的 대립을 완화시켰다. 世界 市場趨勢에 비추어 貸付率을 設定한다는 概念은 모호하다. 적어도 世界市場의 供給이 적절할 때는 穀物에 대한 貸付率은 國際 價格水準과 비슷할 수도 있다. 다른 나라들은 이 價格을 美國의 農業計劃을 管理하는 商品信用公社가 農產物을 備蓄하는데 지불하는 最低價格으로 생각한다. 이로 인해 1977년의 調整法은 貸付率의 115% 정도를 商品信用公社 在庫를 팔 수 있는 最低水準으로 規定하고 있다. 실제로 農民所有의 備蓄計劃이 잘 실시되면 商品信用公社 在庫는 貸付率의 150%로 放出될 수 있다. 現行法은 이 在庫의 輸出이 補助金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價格이 좋아질때까지 在庫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태하에서 國際價格은 美國의 貸付率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供給이 극히 不足하지만 많다면 貸付率이 150% 이상으로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美國의 政策은 실제로 國際價格의 變動範圍를 設定하는 것이다.

美國의 目標價格은 貸付率과는 다른 效果를 갖는다. 그것은 特定年度의 販賣價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분명히 미래의 市場均衡에는 영향을 미친다. 또 目標價格은 美國 內部에서 穀物の 상대적 收益性을 결정하며, 따라서 世界貿易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國際政策에 있어서 貸付率은 단기적으로 중요하고 目標價格은 장기적으로 중요하다. 앞으로 行政當局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計劃에 따른 費用面에서는 目標價格의 下落, 貸付率의 上昇 또는 植付面積의 제한을 요구하는 壓力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플레이가 統制되지 않는다면 目標價格은 계속

오르게 마련이다. 실로 現行法下에서의 目標價格은 農業生産費의 上昇에 따라 오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貸付率의 上昇圧迫 요인이 되어 다른 輸出國과의 競争性 상실이라는 위험을 안게 된다. 그렇게 되면 植付面積을 더욱 制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植付面積制限은 價格을 올리는 방법으로서의 效率性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다. 왜냐 하면 다른 先進國들이 生産을 증대시키고 開發途上國의 輸入市場은 상당히 價格彈力的일 것이기 때문이다.

美國의 在庫政策도 世界市場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과거보다 在庫量이 많으면 安定因子로서 작용하겠지만, 美國 및 다른 나라에서 너무 移越在庫量이 많으면 政策上에 不安定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과다한 在庫量이 國內價格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在庫量이 급격히 감소할 危險性이 있다. 世界市場의 安定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國際價格에 대한 國內價格의 伸縮性이 매우 중요한 관계이다. 在庫를 保有하고 있는 農家에 대한 補助金과 이미 決定된 價格水準 이하로 在庫를 販賣하는 농가에 대한 罰課金은 美國 農家所有 備蓄計劃의 주요한 經濟的 골자이다. 貯藏補助金 자체는 國際價格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罰課金 條項은 價格이 높을 때 在庫放出量을 줄이게 할 것이다. 따라서 美國의 穀物在庫가 國際市場의 價格動向을 효과적으로 抑制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供給量이 不安定하게 될 위험은 財政圧迫을 덜기 위해 在庫를 大量 放出하려는 유혹에서 나올 可能性도 있는데, 이는 1973년의 경우처럼 世界市場을 脆弱하게 만들 것이다.

그 밖에 輸出國 間의 調整과 流通에 대한 政府의 介入 問題가 있다. 小麥에 대해서는 견고한 輸出카르텔이 不可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주요 輸出國 間의 流通調整은 國內的으로 호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또 그런 실례도 있었다. 이 개념에는 두가지 前提가 있다. 첫째로, 輸入市場에 대한 輸出國들의 競争的 販賣는 輸出國들의 總收入을 감소시키므로 競争을 감소시키는 協定은 農家所得 支持目標과 부합된다. 둘째로, 國內價格이 비교적 固定된 國家는 輸入國에의 販賣價格을 올리는 작용을 하며, 그렇지 않으면 輸入國에 關稅收入으로 돌아갈 收入을 輸出國에게 가져다 준다. 게다가 國內價格이 固定된 國家들은 國內剩餘로 말미암아 國內 價格水準이 下落할 可能性이 있으면 輸出補助金 制度를 마구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價格調整協定에

도 참여할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輸出國間의 競爭이 완화되는대서 利得을 보게 되지만 그러한 價格調整을 지킬 수 있는 믿을 만한 동토는 아니다. 輸入國이 輸入에 따른 外換制約이 크면 自國의 國內生産을 增大시켜 높은 國際價格으로 享有할 수 있는 輸出國의 利得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러한 價格協定은 世界小麥市場에 참여하고 있는 開發途上國에 상당히 惠미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

輸出國間의 協定은 현재 美國이 갖고 있는 貿易支配權보다 더 큰 支配權을 輸出國들에게 줄 것이다. 이 協定은 國內政治的으로 뿐만 아니라 國際的으로도 중요하다. 美國보다 生産費가 높은 國家에서 國內生産을 증대시킴으로써 이같은 霸權에 대처할 可能性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小麥市場의 競爭性은 어느정도 유지되리라 본다. EC의 剩餘生産 調整能力 不在, 輸出國 間의 價格協定을 견제하는 輸入國政府의 반응 및 美國政府의 穀物流通에 介入을 원하지 않는 美國內 勢力의 政治的 比重 등이 價格協定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美國經濟에 있어서 農産物의 지속적인 輸出增大는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世界小麥市場의 發展을 刺戟하고 있다. 開發途上國이 食糧을 海外에 의존하는 것은 불리하다는 생각 이외에도 다른 나라들이 小麥市場問題를 진지하게 다루려하지 않는대서 위협의 發生 可能性은 더 크다. 美國의 政策이 國內目標과 世界市場의 需要를 계속 조화시킬 수 있으려면 결정적으로 美國의 現行 輸出指向의 政策을 위협하게 될 마찰, 특히 先進國間의 政策的 差가 없어야 할 것이다.

3. 國家의 水準의 政策變化: 기타 國家

기타 주요 小麥 貿易國들의 政策方向은 대부분 EC와 美國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

캐나다와 濠洲도 물론 獨自的으로 政策을 결정할 수 있고 共同輸出價格의 設定과 같은 움직임에 대한 그들의 태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性格上 美國과 EC의 政策은 기타 國家의 行動範圍를 規制하게 된다. 비교적 輸出量이 적은 濠洲는 在庫水準을 높임으로써 國際市場價格을 安定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中共 같은 나라와 長期 双務契約이 締結된다면 在庫水準이 提高될 可能性도 있다. 濠洲의 政策은 小麥 및 기타 農産物의 輸出量을 增大시키려는 外交的 시도와 아울러 國內所得을 安定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나

아갈 것이다. 濠洲와는 대조적으로 캐나다는 이미 세계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在庫를 조절하여 輸入國에 利得을 가져다 주었으나 이것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므로 開發途上國이 보기에는 캐나다의 政策이 利得을 잃어버리게 될 國內 指向的 政策으로 轉換할 危險性이 있는 것이다.

日本의 小麥政策이 世界市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정도로 변화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 制約要因은 小麥市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小麥과 쌀의 관계에 있다. 쌀이 過剩生産되는 한 日本은 小麥의 生産을 증대시키고 消費는 감소시키려 할 것이다. 日本의 쌀 剩餘問題가 世界의 小麥不足問題와 일치한다면 이것은 開發途上國에 유리한 작용을 할 것이다. 아직 日本의 小麥 政策變化는 開發途上國에 대한 穀物의 供給可能量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반면에 蘇聯의 小麥部門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蘇聯의 小麥生産 優先政策은 즉각 國際 市場價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國內的 消費 安定政策이든 世界 市場與件에 대해 반응하는 政策이든 蘇聯의 在庫政策도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蘇聯의 生産變動은 다른 國家의 경우보다 國內消費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1972년 蘇聯의 小麥輸入은 食糧用이나 飼料用을 막은 하고 國內 消費水準을 유지하기 위한 政策變化로 해석되었다. 결과적으로 蘇聯의 政策變化로 인한 충격이 世界市場에 波及되지 않으려면 蘇聯의 在庫變動이 더 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蘇聯의 在庫變化가 國際 價格安定에 거의 寄與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小麥의 貿易, 消費, 生産 및 在庫에 대한 蘇聯의 政策은 世界市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蘇聯의 政策決定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적절한 情報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世界의 穀物貿易에 대한 이해에는 상당한 乘離가 발생하고 있다.

4. 穀物市場에 있어서의 國際協力

農産物 貿易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은 주요 貿易國이 信賴할 수 있고 公正하다고 생각하는 市場條件을 형성하는 問題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經濟的, 社會的 目標들이 쉽게 달성될 수 있는 貿易體制—低費用的 生産, 합리적인 市場安定 및 必須 食糧供給의 安定度를 提高시킬 수 있는 貿易體制가 達成될 수 있을 것이다. 開發途上國들은 國際的 食糧體制

가 그들의 利益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 자신의 發展計劃을 수립할 수 있게되기를 원할 것이다. 輸出國들은 자의적인 市場封鎖, 지나친 剩餘로 인한 불합리한 경쟁이나 또는 단기적인 政治的 利得을 위해 실시되는 차별적인 貿易政策에 대한 두려움 없이 需要를 予測하고 市場을 開發할 수 있어야 한다. 輸入國들이 供給不足 사태를 악용하려는 경향은 없어야 하고 世界 市場條件이 國內 資源配分 결정에 밑을 만한 근거를 提供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食糧貿易에는 두가지 改善되어야 할 점이 있으며 그 점이 改善되면 開發途上國에도 유리할 것이다. 하나는 보다 安定的인 國際 市場價格이다. 이것은 開發途上國이 貿易指向의인 政策을 추구할 수 있게 하고 輸入價格變動에 따른 충격도 완화시킬 것이다. 또 하나는 食糧生産이 부족할 때 個別國家가 世界市場에서 食糧을 購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와의 双務貿易協定 없이도 食糧輸入이 輸入國 자신에 의해서도 可能케 하는 制度를 뜻한다.

이 問題들에 대해서는 최근 몇가지 接近方法이 논의되었다.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한가지 接近方法으로는 先進國의 在庫水準과 在庫의 價格 反應度를 提高시키려는 시도가 있다. 이 計劃에는 政府間의 在庫調整과 國際機構에 의한 備蓄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또 하나의 接近方法은 食糧不足時期的 消費節約이나 國內 農産物價格 政策의 改革등 여러 가지 手段으로 先進國의 消費變動幅을 넓히는 것이다. 開發途上國의 購買力에 관하여, 問題를 財政的 觀點에서 접근하여 外換不足 問題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支拂援助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食糧援助의 拡大를 주장한 사람도 있다. 어느 전략이나 政治的 魅力, 經濟的 效果 및 費用의 分担面에서 利点이 있으나 이 전략들의 進展은 매우 느렸다. 國內政策의 변화는 부득이하게 일어났던 것이다.

새 國際 小麥協定에서는 在庫調整方法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 調整된 備蓄計劃下에서 輸出國과 輸入國은 國際價格이 一定水準 이하로 떨어지면 備蓄하고 國際價格이 크게 上昇하면 放出하는데 동의할 것이다. 이 計劃은 합치점에 이르는 政治的 어려움 뿐만 아니라 經濟的 費用도 수반하고 있다. 개별 輸入國, 특히 輸入量이 적은 輸入國이 在庫保有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기본적으로 國際價格 變化에 대한 투기에서 나온다. 危險負擔을 안

고 싶어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國內 市場安定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낮은 費用으로 동일한 安定度를 줄 수 있는 다른 政策代案을 이용할 수 있다. 穀物의 大量輸入國이 平均輸入量 이상으로 輸入할 때 輸入價가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이 國家는 備蓄에 한계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輸入國들은 在庫目標 水準을 부과하는 계획에 별로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穀物 輸出國들에는 穀物 供給源으로서의 信用維持 같은 備蓄動機가 있다. 國家間의 在庫調整 計劃은 備蓄으로 輸出國이 안게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輸入國이 國內 生産變動에 대처하여 國內 在庫의 적정수준 유지보다는 貿易에 의존케 하려면 다른 나라 특히 輸出國들의 在庫가 可變의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國際的 在庫調整을 위한 시도는 관련 國家의 利害相衝에 직면하고 있어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問題는 在庫政策의 國際的 調整이 國家의 優先權下의 在庫政策보다 더 큰 利得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 在庫調整計劃을 완성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 國家內的 民間在庫가 그 나라 전체의 입장에서서는 부적당하듯이, 國家別在庫가 世界 전체의 입장에서서는 부적당하다는 전제가 있다.

국제적 政策 調整에 의한 危險負擔의 分散은 곧 危險負擔의 감소이나 國家政策의 自律性喪失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이 問題가 해결되려면 世界 穀物經濟에 또다른 충격이 가해져야 할는지 모른다. 在庫가 적당한 때에는 이 問題에 대해 國際的 합의를 얻을 수 있는 誘因이 없다.

不安定 問題에 대한 두번째 解決方法은 先進國이 消費를 보다 伸縮的으로 調整하는 것이다. 이 報告書에서는 消費調整을 生産變動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 代案으로서 제시하였다. 國家가 貿易을 管掌하는 社會主義 國家에서는 그들이 원한다면 食糧不足 時期에 供給不足의 壓力을 피하기 위해 輸入을 調整할 수 있다. 그들은 供給이 過剩일때 輸入을 늘릴 수도 있다. 貿易障壁의 存在与否에 상관없이 輸入意思 決定에 있어서 價格機構에 의존하는 國家들은 價格變化를 통해 직접 消費調整을 誘導할 것으로 보인다.

이 接近方法은 消費者 價格水準과 아울러 畜産部門의 순환적 변동을 安定시키려는 이들 나라들의 의도와 상충되어 문제가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接近方法은 世界 食糧經濟에서 開途國과 先進國 間에 開放的인 相互依存 關係를 가져온다는 利點이 있다. 이 接近方法이 政策과 調和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在庫調節 및 外換機能 같은 다른 措置들의 必要性이 결

정된다.

食糧을 輸入하는 開途國의 外換問題를 제기하고 이 問題를 다루기 위한 직접적인 行동을 提案하는 計劃이 최근 주목을 끌고 있다. 이 計劃에서는 開途國의 輸入때문에 外換援助를 직접 연결시킨다. 이 計劃에는 輸入國의 國際收支를 改善하고 財政負擔을 덜기 위해 食糧 輸入費用의 변동에 관련된 日련의 財政的 援助나 食糧輸入에 필요한 商業借款提供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방법은 在庫 및 消費調整과는 거리가 멀지만 國內消費를 保護하는 政策을 유지 내지 強化할 수 있으려면 在庫의 증대가 필요하다. 이것은 세계적 調整問題를 악화시키며 보다 伸縮的인 在庫나 先進國의 消費調整이 없을 경우 國際價格을 不安定하게 만든다. 그러한 接近方法은 보다 신축적인 在庫나 또는 先進國의 消費調整과 결합되어야 國際的 安定과 國內的 安定을 동시에 達成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國際的 安定的 희생위에서나 國內的 安定을 이루게 될 것이다.

購買力 問題에 대해 보다 전통적인 接近方法은 兩國間 또는 多國間 食糧販賣의 貸与條件을 통해 問題를 접근하는 것이다. 이 接近方法은 食糧援助를 先進國의 國內 農業政策에서 분리시킬 것을 강조한다. 先進國의 不規則的인 剩餘에 의존하는 食糧援助는 일반적으로 開途國의 食糧計劃 樹立에 적절한 기초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보다 信賴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食糧援助는 開途國의 豐凶과 같은 國內的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같은 필요를 充足시킬 수 있는 食糧供給의 保障은 開途國이 穀物이나 外換을 大量 備蓄하지 않아도 되게 할 것이다.

이 保險的 接近方法에 필요한 在庫는 輸出國이 保有하게 될 것이다. 이 것이 價格安定에 미치는 效果는 伸縮的인 在庫變化가 消費安定을, 유도할 만큼 적절했는가에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政策은 貸与市場 뿐만 아니라 商業市場에 대해서도 그 의미가 있다. 보다 직접적인 輸入·援助計劃에 있어서는 消費水準이 보다 安定되고 受惠國의 在庫水準 變動幅이 감소하면 할수록 消費調整 또는 在庫調節에 있어서 援助를 제공하는 나라에게는 큰 負擔을 줄 것이다. 開途國의 食糧安保를 提高시키려는 目標은 市場에 관련된 어느 나라에게도 그에 상응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小麥市場의 問題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

니면서도 進展이 별로 없었던 것은 부분적으로 良好한 世界 市場條件이 5년 전의 危機感을 감소시킨데 기인한다. 하지만 問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問題들은 특히 先進國의 國內 指向의 政策에 의해 支配되는 市場構造로부터 나오며, 이와 같은 현실은 改善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VII. 開發途上國에 대한 含蓄의 의미

1. 小麥市場의 相互依存性

先進國의 價格政策은 외부의 市場條件 보다는 國內條件에 반응하여 전개되어 왔다. 이 政策들은 변하기는 하지만 國際적으로 協商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國際市場과 開發國에 미치는 이 政策들의 영향은 그 주요 目標에 따라 우연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것은 先進國의 政策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적절한 商業的 決定을 내리기 위해서는 小麥市場에 대한 이해가 必須的이다. 또한 開發國의 행동은 先進國의 農業生産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開發國의 역할이 이미 상당히 커진 小麥市場에서는 開發國의 貿易體制에 대한 信賴度가 先進國의 農業政策 方向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世界의 食糧體制에 있어서 政策間의 相互依存性은 매우 중요하다. 각국의 政策이 相互依存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開發國의 利益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되며 한 國家의 政策이 세계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動態의 屬性에 유의해야 한다. 政策이 價格 및 貿易에 미치는 短期的 效果를 추정하기는 훨씬 쉽겠지만, 長期的 效果의 추정도 앞으로의 展望을 위해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넓은 의미로 局限된 것이기는 하나 質的인 면에서 지난 10년 간의 경험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相互依存性을 定義하자면 複合的 小麥政策을 어떤 特性을 지닌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溫帶 및 熱帶地域에 넓게 分布되어 있는 生産者들은 대개 그들의 生産物을 政府機關이나 또는 公共機關에 의해 價格이 조절되는 市場에 販賣한다. 生産者 受取價格은 先進國, 특히 他作物과의 경쟁 때문에 小麥에 대한 價格支持가 요구되는 先進國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보통 開發國의 生産者는 價格支持를 받지 못하며 때로는 杜

會計計劃에 支拂되는 税金도 물어야 한다. 따라서 開發國 農民의 희생의 代價로 高所得國家의 生産을 刺戟하는 方向으로의 偏倚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偏倚가 농업生産의 지리적 最適配分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하기 어려우며 이 效果의 상대적 費用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貿易量과 貿易方向 및 政策이 작용하는 狀況에 영향을 미친다.

消費側面에서는 價格誘因이 生産側面과 반대다. 先進國의 消費者는 生産者의 所得維持를 위해 많은 費用을 支拂하며 開發國의 消費者는 固定된 價格과 主食費를 낮추는 補助金의 혜택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食糧의 無償援助를 포함하여 先進國의 農業政策으로 인한 낮은 國際 市場價格의 혜택도 받는다. 先進國의 納稅者들은 海外援助 및 國內備蓄을 容認함으로써 暗默的 支出을 하고 있는 셈이다. 開發國에서는 租稅負擔이 生産者 支援보다는 消費者를 위해 쓰이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시스템 아래서 生産者와 消費者 間의 惠沢再分配는 外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先進國에서 農民에게 높은 價格을 支持해 주면 輸入國의 消費者 物價를 낮추어서 수입國의 租稅負擔을 덜어준다. 마찬가지로 低所得國의 消費者 支援도 先進國 農産物에 대한 需要市場을 확대하여 價格 支持에 따른 先進國 納稅者의 負擔을 덜어준다. 결국 시스템내 한 부분에 의한 意思決定은 다른 부분, 다른 國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先進國의 政策이 開發國에 미치는 영향은 交易條件, 所得分配과 雇傭水準, 資源配分, 國際收支 不均衡, 政府負擔 등의 5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선진국의 政策은 交易條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先進國의 小麦政策은 國際價格을 낮춤으로써 輸入國에 유리한 작용을 했으며 食糧援助는 受援國에 직접적으로 補助를 제공한 것이었다. 반면 開發國中 穀物輸出國, 특히 아르헨티나는 先進國의 小麦政策으로 야기된 낮은 國際價格과 食糧援助에 따른 市場喪失로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대체로 開發國은 小麦의 純輸入國이므로 지난 10년 間의 先進國의 價格政策 덕분에 開發國의 交易條件은 改善된 것으로 보인다.

農業保護政策에 의해 일어나는 小麦의 어떠한 國際 價格變動도 交易條件을 不安定하게 한다는 것은 先進國의 農業保護 政策이 交易條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결론이다. 그 결과는 다소 임의적인 購買力의 再分配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자연적인 食糧不足이나 剩餘事態가 생기

면 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先進國의 政策은 開發國 政府가 食糧政策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能力과 世界市場의 變動에 의한 國內經濟의 충격을 막을 수 있는 能力을 감소시켰다. 많은 나라의 國內市場이 世界市場의 價格變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 世界市場變動의 余波는 주로 都市나 港口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開發途上國의 대부분도 國際市場과 國內市場을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는 政策을 갖고 있다. 이 경우 世界市場이 國內農業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인 것이며 그 영향은 政府의 計劃과 다른 農産物의 輸入에 의해 좌우된다. 1970년대 初期와 같이 開發國의 輸出品 價格과 小麥價格이 동시에 오른다면 世界 小麥市場이 開發國에 미치는 영향은 減少되나 커피, 코코아, 茶 및 설탕 등의 價格은 下落하는데 小麥價格은 上昇한다면 그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世界 小麥市場의 사태가 開發國內의 所得分配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복잡한 문제이고 그 중요성은 交易條件에 뒤지지 않는다. 이 영향은 貿易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관계없이 어떤 開發國經濟에서도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農村失業이 존재하는 地域에서 중요할 것이다. 農村地域의 失業은 국가 전체의 購買力(有效需要)不足으로 生産力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도 基因한다. 이때 農業生産増大 뿐만 아니라 非農業經濟의 刺戟을 위해서도 政府의 農業에 대한 投資政策이 요구된다. 이 政策은 1930년대 不況期의 先進國의 農家所得 支持政策과 비슷하다. 이런 農家所得 支持政策은 國家的 및 地域的 經濟發展을 위한 자극제가 된다. 어쨌든, 선진국의 農業政策은 開發國 農業部門의 購買力을 축소시킴으로써 開發國의 發展을 저해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問題인 資源配分 問題를 고려해 보아도 비슷한 결론이 유도된다. 國家 間의 勞動力 移動이 자유롭고 雇傭水準도 높다고 가정할 때 價格支持 政策에 힘입어 生産費가 높은 地域에서 過剩生産이 이루어지면 세계적으로 농업의 總資源費用을 높이게 되고 非農業財의 생산은 감소시키게 된다.

農業에 대한 價格保護는 주로 선진국의 사치성 農産物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保護는 自國의 消費者와 納稅者에게 부담을 주며 開發途上國 消費者의 부담은 덜어준다 할지라도 世界 전체의 所得을 감소시키고 전체적 食糧生産費를 높이게 된다.

이 결론은 특히 失業이 존재할 때 私的費用(生産者費用)과는 다른 社會資源費用面에서도 타당하다. 失業은 工業部門이 農業部門으로부터 過剩勞動力을 흡수할 능력이 없는 開發途上國에서 더 클 것이다. 農業生産의 社會的費用은 선진국 보다 開發途上國의 農業에 높은 價格을 유지시켜 주거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좀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世界農業政策은 開發途上國의 利益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外換面에서는 위 결론이 修正된다. 예를 들어 政府가 직접 輸入량을 조절함으로써 輸入價格이 저하될때 交易條件上의 利得을 얻게 된다면 小麥 및 기타 식량의 低價格은 제3 세계의 國際收支 負擔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볼때 先進國 政策은 開發途上國의 財政的 制約을 완화시켜 이들의 經濟政策 運用에 기여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先進國의 政策이 國際價格의 不安定性을 높여 開發途上國에 어려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農業政策에 따른 財政的 費用과 低位의 課稅標準 및 課稅水準의 政治的 受容性 与否에 의해 제약을 받는 開發途上國의 行政當局이 食糧 및 農業部門에 많은 支援을 할 수 없음을 고려할때 低國際價格은 開發途上國에 利益이 될 것이다. 輸出補助金과 農民에게 직접 지불되는 補助金 등으로 발생하는 先進國의 막대한 租稅負擔은 國內 生産者 支持價格 水準을 제약하는 작용을 한다. 國際 市場價格이 높으면 先進國 政府의 財政的 壓迫은 줄어드는 반면 開發途上國은 높은 輸入費用에 따른 財政負擔을 안게 되어 國內 食品價格을 올리거나 農業部門에 대한 租稅를 증대시키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農産物의 低國際價格은 開發途上國의 財政政策에는 利益이 되지만 先進國의 農業保護政策 遂行에는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要約하면 先進國의 農業政策은 開發途上國의 發展이 農業部門에서의 購買力 不足으로 제약을 받을 경우 小麥 등의 農産物 國際價格을 낮춤으로써 開發途上國에 損害를 입힐 수도 있다. 또한 先進國의 政策은 開發途上國의 消費者에게는 利益이 될지라도 세계적으로 資源配分을 誤導하고 食品生産資源費用을 높여 非農業 總生産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이 政策은 開發途上國輸入國에는 財政的으로 도움을 주지만 輸出國에는 손해를 준다. 그러나 先進國의 政策은 開發途上國 政府의 消費者에 대한 食糧補助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 國際價格이 不安定하게 되면 先進國 政策의 潜在的 利益은 줄어드는

반면 손해는 커진다. 先進國의 政策이 世界 小麥市場에 미치는 영향을 評價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實質效果가 나라에 따라 차이가 많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2. 結 論

이와 같은 관계를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誘導될 수 있다.

先進國의 小麥生産 變動은 開途國에 潜在的인 問題가 될 수 있다. 價格 및 所得支持政策 자체가 이런 不安定을 줄일 것이나, 어떤 경우에는 生産이 政策決定에 따라 변하게 된다. 生産水準이 安定되면 開途國이 食糧供給 計劃을 세우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 目的을 위한 政策은 國際會議에서 자주 거론되는 在庫 및 貿易政策보다 직접적으로 開途國에 利益을 줄 수 있다. 절대적인 生産變動을 줄이기 위해서는 技術上的 發展이 필요하고 政策으로 인한 變動을 줄이는 것이 國際社會에서는 優先權을 갖는 것이다.

先進國에서는 在庫와 貿易量の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함으로 消費變動이 生産變動보다 일반적으로 적다. 先進國의 消費를 安定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貿易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더 많은 在庫를 備蓄해야 된다. 유럽과 蘇聯을 중심으로 飼料穀으로서의 小麥需要가 크게 증대할때 消費는 매우 크게 변동한다. 畜産部門의 변동을 피하기 위해서 小麥市場 條件에 따라 飼料穀 政策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小麥과 他穀物 間의 相對價格은 더욱 流動的일 필요가 있다.

在庫政策의 변화는 價格政策이 世界市場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주로 價格伸縮的인 캐나다와 미국의 在庫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表14). 이와 같은 반응은 價格政策의 效果가 부분적으로 在庫政策에 의해 흡수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 效果는 在庫變化와 價格政策 效果가 상쇄될 만큼 크지는 않다(表10). 최근에는 在庫가 감소되면 價格政策에 의한 剩餘가 발생하고 在庫가 증가하면 부족이 발생한다. 在庫의 價格反應度가 지금과 마찬가지로(또는 그 이상)이어도, 在庫가 價格政策 效果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이용된다면 이 狀況은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國內生産이 감소하면 그 可能性이 높아지더라도 國際價格이 저렴한 시기에 在庫가 急落하는 것을 피하며, 國內生産이 증대하면 그 可能性이 높아지더라도 國際價格이 높은 時期에 在庫가 急増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

면, 開途國에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지난 10년 間, 前者의 狀況은 1970/71년과 1972/73년에, 後者의 狀況은 1974/75년과 1975/76년에 일어난 바 있다.

國內 價格政策에 대한 의미는 명백하다. 在庫變化가 世界市場을 안정시키는 데 완전한 역할을 한다면 生産者 및 消費者價格은 下落할 수 있을 것이다. 國際市場이 均衡을 이루면 在庫變化를 통하여 市場攪亂은 방지될 수 있다. 이같은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在庫政策이 價格政策의 과오를 고치려 할 때 市場을 不安定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만일 價格이 食糧不足時期에 일시적으로(不足이 지속된다면 永久的으로) 오를 수 있다면, 高穀價時期의 在庫政策은 國內 價格支持政策 目標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負擔을 안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와 같은 價格政策의 伸縮性이 없다면 在庫變化는 지난 10년 間보다 클 것이다. 價格政策의 伸縮性이란 平均으로 높은 在庫水準, 그 在庫를 保有할 수 있는 보다 큰 能力과 價格變化에 대한 높은 反應度를 의미한다. 價格 非反應的인 在庫를 갖고 있는 EC나 日本 같은 나라들이 그와같은 책임을 맡는다면 在庫가 増大될 수 있다. 價格政策이 과거와 같이 계속되고 價格政策의 貿易效果를 완전히 상쇄시키도록 在庫政策이 수행된다면 國際價格이 M/T당 10달러 오른 후에 放出되는 總在庫量은 0.8백만M/T이 아니라 3.8백만M/T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國際價格水準이 急變할 가능성도 감소될 것이다(表14).

이것들은 先進國의 小麥政策을 評價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重要點들이다. 世界市場을 안정시키는 政策으로는 生産變動을 감소시키는 政策, 生産變動에 대한 消費反應度を 提高시키는 政策, 國際價格에 대한 在庫反應度を 提高시키는 政策과 價格政策으로 발생한 剩餘를 在庫를 통하여 흡수시키는 政策 등이 있다. 流通期間 中 價格이 固定的인 傾向이 있을지라도 國際 價格趨勢에 따라 國內價格이 움직이도록 價格政策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모든 國家의 在庫變化가 국제적으로 建設的인 方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在庫政策의 國際的인 調整이 필요하다. 世界 市場安定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政策으로는 剩餘를 처리하기 위한 輸出補助金制度 및 國際價格이 높을 때 先進輸入國이 自國의 消費水準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双務貿易去來 등 世界 市場條件과 國內價格을 乘離시키는 政策이 있다.